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복잡한 상황과 갈등이 해소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5월 25일 (토) 제 1731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메시아닉 주스, 작지만 하나님이 불러 쓰신다

CT,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 이 겪는 고난소개와 이들 통한 복음전파와 화해사역 소개

미국 크리스천에게 이스라엘은 예언의 성취, 혼돈의 지역에 있는 민주주의 동맹국, 또는 나라 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압하는 점령자로 보일 것이다. 어떤 이스라엘을 선택해야 할까?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복음주의자 3명 중 2명은 이스라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조건이라면 이 질문이 더 나올 것이다: 복음주의자는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 다행히도, 이스라엘과 복음주의자 사이에는 관련 통역자가 있다. "기독교 공동체가 믿음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싶다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Messianic Jews)'을 통하는 것이 최선"이

라고 이스라엘 변호사이자 예수를 믿는 제이미 코웬은 말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복잡한 상황 때문에 '메시아닉 주스'조차도 팔레스타인에 관한 문제에서는 입장이 갈린다. 얼마전 이러한 입장차가 극명하게 노출됐다.

따라서 크리스천티투데이는 세계에서 극소수인 '메시아닉 주스'의 향후 성장세와 역할에 따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래된 긴장이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도한다(How Palestine Divides Messianic Jews: The complexity of the situation even presents a challenge to Jewish Christian unity).

이스라엘 옹호동맹(AIA)의 폴 리버먼 이사가 온라인 매체(The Intercept)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유일한 권리는 불법 거주자의 권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그는 이스라엘 내 인종 청소를 지지했다는 거센 비난을 샀다.

리버먼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동맹'(MJAA)이 유엔의 팔레스타인 원조기금(2017년 3억6400만 달러)을 웨스트뱅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해외 이주비용을 제공하는 계획으로 전환하려는 로비를 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의 목표는 분명하다. 웨스트뱅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 수를 극소수로 줄여 이 지역을 유대인 단일민족국가로 병합하려는 것이다.

MJAA는 2015년에 이 계획을 처음 채택했고,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했다는 'The Intercept' 보도는 '예수



중동지역에서 메시아닉 주들이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사회에서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계획은 웨스트뱅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MJAA의 CEO 조엘 체르노프는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이 계획에 "인구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대와 사마리아'-이스라엘은 '웨스트뱅크'라는 중립적인 지명 대신에 이 지역이 자기네 영토임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부른다-에는 약 70만의 유대인과 150만의 아랍인이 살고 있다. 체르노프는 이 지역에 더 많은 유대인 정착지가 건설되기를 원한다. (3면으로 계속)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총회장 이기성 목사 부총회장 이재광 목사/한광호 장로

KPCA 44회 정기총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 44회 총회가 5월 7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신임 총회장에 이기성 목사가 추대됐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엡 4:24)라는 주제로 밴쿠버 삼성교회에서 열린 총회는 7일 개회예배 및 총회, 8일 43회 보고 및 44회 회무 처리, 삼성교회 수요일예배 참석, 9일 회무 및 폐회 등을 주요 일정으로 진행됐다.

임원선거에서 선출된 새 임원단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이기성 목사 △목사 부총회장 이재광 목사(동남노회) △장로부총회장 한광호 장로(필라노회) △서기 박서기 김도완 목사(뉴저지노회) △회록서기 김임호 목사(수도노회) △부회록서기 이태한 목사(뉴질랜드노회) △회계 이민식 장로(서노회) △부회계 김병기 장로(캐나다동노회) △영어회록서기 John Kim(영어노회). 개회예배 설교는 제43회 총



KAPC 제44회 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장 원중권 목사가 '돌무화과 나무와 교회의 사명'(눅19:1-10)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원 목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며 "해외에 흩어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의 이민교회 개척자, 선교사의 선교사 모두가 여기고 성실한 목사와 사모들이여, 그 나무는 불꽃없는 모습이지만 새끼오를 예수와 만나게 했다. 치유와 회복이 있고, 위로와 격려가 있는 우리 교회와 선교지에서 한인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하늘나라 백성으로 변화하는 소망을 갖자"고 강조하며, 교단의 목회자와 선교사에게 위로

와 축복을 전했다.

7일 개회예배는 이기성 목사 인도로 기도 부총회장 전홍권 장로, 성경봉독 서기 이재광 목사, 찬양 삼성교회 찬양대, 설교 총회장 원중권 목사가 맡았다. 성찬식은 존 김 목사가 집례했으며, 직전 총회장 박성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내빈으로 NCKPC 총회장 원영호 목사가 소개됐다. 둘째 날은 각 노회와 임원회에서 올라온 현의안을 처리하는 시간으로 이번 총회 주요이슈는 퍼시픽노회와 웨드럴웨이선교교회 관련 건과 사무총장 인선 관련 안건.

(3면으로 계속)



시론 김인환 목사



3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8면 청교도 신앙 이윤석 목사



16면 인터뷰 이기성 목사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ATK 정회원
www.wmu.edu

할렐루야 백화점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www.biblestore.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초청의 말씀
학위 취득자
일시: 주후 2019년 6월 3일(월) 오후 7시
장소: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연락처: (718)463-7163, (718)886-4040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부이사장 허경화 장로

● 발행인 칼럼 ●

병원에서 가족으로, 그리고 전쟁터로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대부분의 사람에게 케 primary care를 해주는 병 원과 의사가 있다. 대부분의 primary doctor들이 다음 2 가지 면을 갖고 있다고 생 각하는데 나의 주치의는 무 엇보다 단호하신 분이다. 나 의 건강에 대한 여러 지침 을 강하고 분명하게 일러준 다. 그리고 그들은 따뜻한 분이다. 운동을 열심히 하 라, 이런 음식을 드시라는 등의 말을 잘 따르지 않고 병원에 다시 가도 살짝 실망의 표정은 짓지만 다시 용기를 주는 말로 진료를 끝낸다. 의사가 엄격하지만 해서도 안 되고 동정심만 많아도 안 될 것이다. 그 중의 한 면만 가지 고는 어떻게 온전한 치유나 돌봄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면 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의 주치의 의 양면성이 고맙다. 교회는 반드시 이런 병원의 역할이 있 어야 한다. 영적 치유에 필요한 강력한 말씀과 따뜻한 위로 가 필요하다. 교인들이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였지만 주일 에 교회에 온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말씀의 무용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터이다. 그들을 원수같이 여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훈계와 책망만으로 돌려보낸다면 상처와 아픔이 잘 치유될 수 있을까. 타협할 수 없는 강력한 말씀과 함께 기다림을 담은 따뜻한 위로를 통해 성도들은 조금씩 건강해질 것이다.

교회는 그런 좋은 병원으로만 머무를 수 없다. 마침내 가 족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열두 해 혈루병을 앓던 여인 을 고쳐주시고 "딸아"라고 부르셨다. 치유뿐 아니라 예수님 의 가족으로 초청하신 것이다. 그 여인의 감격은 얼마나 컸 겠는가. 그의 열두 해의 아픔과는 견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을 가진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축복을 받았으니, 늘 울어도 못 잤을 감격으로 이 땅의 남은 날들을 살다가 천국에 올라 갔을 것이다.

36년 전 한국의 여름과 가을은 눈물바다였다. 1983년 6월 30일 밤부터 11월 14일 새벽까지 전개된 KBS의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을 시청하거나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의 눈 물이 온 나라에 강같이 흘렀던 것을 기억한다. 1950년 한국 전쟁 등으로 헤어졌던 가족들의 재회장면은, 죄로 헤어졌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가족으로 만나는 교회의 모형 과도 같았다.

교회는 이 땅에서 병원의 회복과 가족의 감격만으로 살 수 없다. 교회가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전투를 외면한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교회 에게는 저 오래전 유다의 바벨론 포로 이야기가 머잖아 현 실이 될 것이다. 교회가 전개하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단 하나의 전제가 있으니 진리로 싸우기만 한다면.

십자군 전쟁의 실패는 진리로 싸운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 재물과 명예를 위한 싸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으로 포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마틴 루터의 이런 선포 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영적 승리에 적실하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하나/겉내지 말고 썩거라 진리 로 이기리로나/진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 도/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라." 그렇다. 교회는 진 리로만 이긴다. 그 싸움 가운데 원수들은 물러갈 것이고 그 들에게 잡혀있던 자들은 찾게 될 것이다.

교회에 빼놓을 수 없는 사이클(cycle)이 있다. 그 어느 하 나라도 떼어내면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그릇되리라. 그 사 이클은 무엇인가.

"병원에서 가족으로, 그리고 전쟁터로"

창조로 위장한 파괴에 현혹돼선 안 된다!

렐레번트,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매력(?)과 심각한 위험성 볼수 있는 성경적 비평 소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는 대부분 외계인의 침공이라든가 지구를 뒤덮는 자연재해 같은, 지구에 대한 가공할만한 종말론 적 위협으로 시작된다.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궁극의 위협을 가져 온 건 바로 '타노스', 외계 빌런이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 트론' 마지막 장면에서 우주의 힘이 담긴 인피니티 스톤 여섯 개 를 담은 장갑, 인피니티 건틀렛을 차고 등장한 타노스. 그런데 이 외계 빌런은 뜻밖에도 스스로 '필연적인 존재(inevitable)' 즉 신이 되고자 한다.

바로 이러한 서사적 내용이 담긴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 첫 주에만 전세계에서 12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흥행 수

입 신기록을 세웠다. 그만큼 지난 10년간 쌓아왔던 'MCU'(마 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세계가 3시간 동안 '엔드게임'에서 펼 쳐지고, 이에 지구촌은 완전히 열광하고 있다.

그러나 크리스천으로서 이 영화를 보고 마냥 열광할 수만은 없다. 영화 안에는 분명히 지극히 할리우드적인 그리고 마블 영 화사의 세계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영화 내용 을 소개하고, 이 영화를 보고나서 불편함을 느낀 크리스천의 글 을 소개한다(The Strange Appeal and Serious Danger of Saying Thanos Was Right: With the arrival of Avengers: Endgame, it's time to reevaluate the Mad Titan).

2008년 처음 개봉한 '아이언 맨' 이후, '어벤져스 엔드게임' 은 22번째 마블 영화다. 폭발 적인 인구 증가와 고령된 자원 이 지구, 나아가 우주를 멸망 으로 이끌 것이라는 '해안(?)' 을 가지게 된 타노스는 사랑하 는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면서 까지도 손에 넣은 여섯 개의 인피니티 스톤으로 지구와 전 우주를 구원하고자 무차별적 인 '심판'을 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구는 물론, 우주의 인 구를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 했다.

그런데 감히 '지구의 한 줌 도 안 되는 어벤져스' 무리가 양자물리학 따위를 동원해 과 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그가 없애버린 그 '인피니티 스톤'을



남발하는 인류의 역사였지만, 악랄한 계획이 적지 않다. 오 필연적인 존재의 심판 대신 그 불완전한 인간의 역사를 스스 로 선택하고자 한 것이다.

결국 '어벤져스: 엔드게임' 의 결론은 숱한 오류와 폐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량 살상을 계 획하는 냉정한 군 지도자, 마 블 서사의 악당 타노스다. 타 노스의 의도는 정당한 문제에 기초해 있지만 그의 방법론은 크게 잘못돼 있다.

이 비뚤어진 타이탄은 우 주 생명의 반을 제거하면 생존 자가 변형할 것이라고 믿고 있 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그 럴듯하다. '인피니티 워'에서 양녀 가모라와 논쟁하면서, 타 노스는 찢어지게 가난한 가모 라 고향 행성의 대량학살을 자 신의 윤리적 명분으로 인용한 다. 자신이 개입한 후로 살아

남은 아이들은 '부른 배와 맑 은 하늘'만 알게 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같은 설명은 종종 #Thanoswasright('#타 노스가맞았다') 같은 경향의 보호막을 일으키며 타노스를 따르는 합법적인 추종자 팬을 양산해 낸다.

그러나 타노스의 추론은 생 명의 가치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타노스는 정말 많은 사 람을 살해했다는 것을 알고 있 지만, 이런 죽음은 자신의 큰 그림의 계획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믿는다. 당연히, 생명은 통제적인 살인자를 통 해 맞바꾸거나 조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개인의 영 혼은 깊은 내적인 가치를 가지 고 있고, 바로 그래서 어떤 대

"어벤져스는 전투로 하나님 자처한 타노스 굴복시켰지만 크리스천은 하나님 사랑의 시각으로 독재자에 대항해야"

모으고자 한다. 반을 살려놓았 더니 사라진 자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역사에서 헤어날지 못 한 채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하 고자 한다. 그래서 그 시간의 틈을 비집고 나온 타노스는 이 번에는 다른 결정을 내린다.

영화 '토르: 라그나뢰크(신 들의 몰락)'처럼 아예 기억할 존재들을 없애버리고 천지창 조부터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타노스 그 자신이 '필연적인 존재'이기에 바로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 다. 스스로 정의내린 '필연적 인 존재', 지구어로 번역하자 면 '하나님'이다.

상실로부터 시작된 '어벤져 스: 엔드게임'은 그 상실의 아 픔을 필연으로 수궁하는 대신, 양자물리학이라는 최첨단의 과학을 끌어안으며 과거를 복 구하고자 한다. 비록 폐해를

도 불구하고 인류애와 인류 역 사, 그리고 인류 발전에 대한 '공정적' 헌사다. 신의 심판 대 신 인간의 손으로 자신들이 벌 려놓은 역사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주체적 의지의 '반신론적' 표명 이기도 하다. 물론 그 중심에 미국 문명의 정점인 아이언맨 과 아메리카니즘의 대변자인 캡틴아메리카가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한편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 는 크리스천 벤 플리글(BEN FLEAGLE)은 이 영화 안에 담 겨진 이상한 매력(?)과 심각한 위험성을 말해준다. 바로 미친 타이탄인 타노스를 성경적 관 점에서 평가한다.

'스타워즈'의 황제 펠퍼틴부 터 스잔 콜린스의 '헝거게임' 에 가학적인 스노우 대통령까 지, 영화에는 대표적인 적이나

확하는 냉정한 군 지도자, 마 블 서사의 악당 타노스다. 타 노스의 의도는 정당한 문제에 기초해 있지만 그의 방법론은 크게 잘못돼 있다.

이 비뚤어진 타이탄은 우 주 생명의 반을 제거하면 생존 자가 변형할 것이라고 믿고 있 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그 럴듯하다. '인피니티 워'에서 양녀 가모라와 논쟁하면서, 타 노스는 찢어지게 가난한 가모 라 고향 행성의 대량학살을 자 신의 윤리적 명분으로 인용한 다. 자신이 개입한 후로 살아

량학살의 해결책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타노스의 가장 큰 실 수는 교만이다. 모든 그릇된 생각의 오류를 떠나, 우주의 고치려는 타노스의 계획은 오로지 자신에게 달린 것이었다. 가모라에게 설명하듯이 타노 스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자 신이라고 믿고, 오직 자신만이 옳을 수 있다는 자아도취 된 정신상태를 고수한다.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재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메시아닉 주스, 작지만 하나님이 불러 쓰신다

<1면에서 계속>
그리고 그는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부패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관할하는 이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한다고 확신한다(2017년 MJAA는 자체 설문조사를 근거로 이 지역 팔레스타인 주민의 절반이 해외이주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 준비금 5천 달러를 받으면 그렇게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인종 청소”라는 헤드라인은 진보적이고 반유대적인 언론의 아비한 책략이라고 체르노프는 말했다. 이것이 MJAA에 회비를 내는 회원 3천명이나, 그 지지자 1만2천명, 155개 회당에서는 논란거리가 아니지만 다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에게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다.

“이것이 좋은 제안이라고 합의한 적 없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교회연합(UMJC) 이사 모니크 브럼바흐가 말했다. UMJC에는 75개의 회원 단체들이 속해 있다. “성경은 그 땅을 유대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메시아니즘들은 현대 이스라엘이 성경적 약속의 성취라고 믿는다. 그들은 반유대주의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투자회수·제재”(BDS) 운동에도 반대한다. MJAA와 UMJC 두 단체 모두 이스라엘 내 자선 사업과 투자를 지지한다.

두 단체 모두 아랍 크리스천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과 어떻게 평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점이 없다고 브럼바흐는 말했다. UMJC 전 회장이기도 한 코옌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크리스천 사이의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런 계획에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화해에 관한 로잔 이니시어티브(LIRIP)의 공동의장 리사 로텐에 따르면 여파는 상당하다.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계획은 화해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로텐은 말했다. “우리는 이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월에 로텐은 팔레스타인 측 LIRIP 공동 의장과 함께 이스라엘과

스트뱅크, 가자 지구에서 온 27명의 참가자들을 이끌고 3일간 기도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가졌다. 그 주제에는 정체성, 군 복무, “기본법: 유대 민족 국가 이스라엘”이 포함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고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헌신된 노력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로텐은 말했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이 갈려있지만 메시아니즘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할 때는,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는 일에서는 하나로 단결한다.

그들이 미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위험 요소는 자신들이 미국 사회



에 동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메시아니즘들이 복음주의 기독교에 녹아들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체감하는 위험 요소는 자신들이 반역자로 배척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기독교) 선교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아웃사이더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코옌은 말했다.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신앙이 이스라엘에서 평범한 신앙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위해 시설을 등록하려고 하면 사회적 낙인과 관료주의적 저항이 따른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에서 그들의 자녀들이 군대에 징집돼 일반 유대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

면서 상황은 호전되고 있지만, 가장 큰 진전은 그들이 UMJC와 공동으로 주류 교회들과 밀레니엄세대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30%는 이스라엘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66%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면서 이뤄지고 있다.

“예수(예수)를 믿는 우리의 독특한 위치 때문에 우리는 다른 유대인 공동체 분파들이 할 수 없었던 영향을 기독교 세계에 끼칠 수 있습니다.” 체르노프는 말했다.

“메시아니즘 공동체는 인도주의적 수단과 정치적 수단을 통해 이스라엘에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지만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봉사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고하게 남아 있는 한 가지가 있다: “알리야(Aliyah)다. “올라가다”는 뜻의 이 히브리어는 토라를 낭독하도록 부름을 받는 것(summons)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또한 이스라엘의 귀환법의 규정에 따라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1989년 이스라엘 대법원은 예수를 믿는 것은 곧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므로, 메시아니즘들은 유대인으로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체르노프는 이것을 “오도된 차별”이라고 부르며, 크리스천들 사이에 존재하는 반유대주의로 인한 고통을 메시아니즘들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16면으로 계속)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1면에서 계속>
사무총장의 인선은 “인사위원회가 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 복수 추천하여 본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재석회원과 반수 득표로 인준한다”로 개정됐고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재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총회 임원회가 질의한 은퇴 총대의 자격과 선출 관련 건은 “총회기간(당해연도 5월-익년 5월) 중 시무를 은퇴하

는 목사, 장로는 총대 자격은 있다. 그러나 이듬해까지 임기가 이어지는 선출직 총회임원,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서기 그리고 실행위원은 할 수 없다”로 결의됐다.

3년 동안 연구해 온 노회통합 및 노회폐지는 이번 총회에서 ‘헌법에 규정된 법적절차를 따라 시행한다’는 헌의안이 결의됨에 따라 그동안의 노회간의 대화와 위원회의 갈등 조정이 백지

화됐다.
뉴욕노회의 헌의안인 “각 노회의 헌의안과 취지 설명서는 총회 한 달 전에 총대들에게 발송토록 한다”는 헌의안은 임원회가 시행하도록 했다.

피시픽노회와 웨드렐웨이선교교회와 관련한 헌의안은 장기간의 토론을 거친 후에 박성규 목사, 장세일 사무총장 등 당시의 임원들이 총대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화해의 인사를 하며 마무리됐다.

(기사제공: 해외한인장로회)

시론

아름다운 가정



김인환 목사 (전 총신대학교 총장)

한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지정해서 교회와 국가가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국가는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5월 8일은 아버지 날로,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지정하였고, 교회는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정해서 어린이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5월 둘째 주일은 아버지 주일로 지정해서 부부기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미국도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날로 정해서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보여준

어머니의 헌신적 사랑을 자식들이 감사하는 날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다. 이것은 모두 건전한 가정 속에서 부부의 건전한 관계, 부모와 자식간의 건전한 관계가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정식구들 개개인과 교회, 사회와 국가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고 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시 자신의 천지창조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을 부부로 짝지어 주시면서 결혼의 제도를 시작하시고, 이들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자식을 낳아 양육하면서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하도록 하심으로 시작된 제도이었다. 따라서 가정은 신성한 제도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가정도 함께 타락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를 계속케 하시므로 가정제도도 유지되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셨을 때 결혼과 가정제도도 역시 구원받고 회복되어 다시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으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도록 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 남녀 성도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자식 낳기를 꺼려하므로 가정의 숫자는 날로 줄어들기만 한다. 심지어 교인들 사이에 동성애까지 자행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혼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므로 가정제도 자체가 허물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또 한편 비록 가정생활을 한다하더라도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간에 갈등이 심각해지므로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못하고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 가정은 부지기수이다. 이러한 불행한 가정이 많을수록 건전한 교회, 사회, 국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다시금 우리들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래서 심각한 경쟁 사회 속에서 생존을 위해 한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치고 병든 가정식구들이 가정을 통하여 치유를 받고 믿음이 회복되며 마음의 안정과 평안, 새로운 활력을 충전 받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급받으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가정이란 주님 중심으로 모든 식구들이 서로의 자질과 자격이나 형편과 여건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라는 사실만 중요시 하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서로 서로에게 주게 하듯 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다.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을 대하듯 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교회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듯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아내 역시 그러한 자세로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사랑하듯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며,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자식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듯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간다면, 그 가정은 가장 아름답고 힘 있는 가정이 될 것이다. 이때 모든 가정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남편은 자신의 가문의 전통이나 문화적 관습을 아내와 자식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가정 식구들의 가치관과 신앙과 생활의 준거와 권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의 권위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 모두 복종하고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정 식구들은 각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다음 식구들에게 그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말라.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더욱 섭섭해지면서 가정불화가 싹트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우를 위한 자선기금 마련

제7회

LA여성선교합창단 정기연주회

LOS ANGELES WOMEN'S MISSION CHORUS

LOREM IPSUM

단장 최정직

지휘 최왕성

반주 박명선

특별출연 오렌지 미션 콰이어

지휘: 장진영 | 반주: 최지혜 | 단장: 노상철 | 이사장: 김계환

June 2, 2019 (SUN) 6:00PM

동양선교교회 Oriental Mission Church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 주 최 | LA여성선교합창단

| 후 원 | 남가주음악가협회, 남가주교회음악가협회, 미주크리스천신문사

| 문 의 | 213.700.7881, 818.360.9292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의 귀중성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에서 사도바울은 감옥에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믿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성도들의 간구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신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을 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사도바울은 성도들의 기도를 대단히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이 성도들의 기도로 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끊어지지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을 느껴 본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매번 도미니카 선교를 갈 때마다 확실하게 느낀다.

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속에서 항상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초창기 10여년 동안 선교를 가면 항상 공항에서 문제가 있었다. 40-50여명 되는 선교대원들이 수십 개 때로는 백 개가 넘는 이민가방에 그곳 아이들과 장년들에게 새 옷이나 신발 그리고 약을 주려고 가지고 가면 공항 직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많이 수월해졌지만 초창기에는 아주 까다롭게 검사를 하였다. 그래서 다 선교하러 가지고 온 물건이라고 말해도 새 물건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세관청으로 우리를 보내는 것이었다. 그때에 나는 항상 기도를 하며 세관청 문 앞까지 가게 되었다. 거기만 넘으면 반드시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고 결국 세금이 많아서 물건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때마다 항상 있었던 일이 무엇이나면 어디선가 알지 못하는 공항 직원이 나타나서 선교하러 가지고 온 물건

인데 무슨 세금을 내라고 하고 하면서 보내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선교 초기 당시 10여년 동안 한 번도 물건을 포기하지 않고 통과를 하게 되었다. 나는 그 때마다 생각한 것은 교회에서 밤마다 모여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니었다.

두 번째로 내가 교회에서 해주시는 기도의 힘을 느낀 것은 제가 도미니카에서 정말 실망되는 일을 많이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안 좋은 여건을 뛰어넘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을 나는 처음엔 나의 신앙의 힘인 줄로만 알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해주는 힘이 라는 것을 언젠가부터 느끼고 기도부탁을 하고 꼭 가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우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디를 출타해서 중요한 일을 보게 되면 꼭 기도를 부탁하고 가라고 말한

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기도하는 동안 놀랍게도 생각밖에 순조롭게 일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볼 때 기도는 서로 해주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목사도 기도해주는 분들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해주는 목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빠진다면 지금까지 이룬 일 중에서 대부분은 없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한다.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교회에 그동안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은 다 없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도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기도가 없었다면 그동안 있었던 좋은 일은 없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이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

는데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그에게 고통을 더 주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선교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믿는 자들을 보면 화를 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렇게 하여도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기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는 아마도 이런 마음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성도들의 기도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자신이 참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낀 것 같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에 감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며 이것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앞서서 하는 종들이 믿음의 힘을 얻게 되고 믿음의 형제들과 내 사랑 하는 자녀들이 힘을 얻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이대우 목사

(필라한빛교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입니다. 인간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이 낳지 않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가 걱정 상담실이 생겼습니다. 어린이가 자살합니다.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행복한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날의 유래는 어린이를 행복하게 하자는 운동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로아 지역 전도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마 19:13-15, 눅 18:15-17).

1. 어린이를 잘 키우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들은 야기들을 말합니다.

디모데와 사무엘(삼상2:26)과 세례요한(눅1:80)은 젖 떤 아이(시131:2)로 축복을 받았습니

다. 성경은 어린아이의 축복을 자녀축복(창48:9), 여호와와 기업, 상급(시127:3), 어린 감람나무(시28:3), 신체적(기), 정신적(지혜), 영적성장(믿음, 눅2:40 잠22:6)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기는 기쁨과 사랑입니다. 인생에서 세 가지 즐거운 소리는 베 짜는 소리, 글 읽는 소리, 애 키우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언제나 빠르게 자라야 합니다. 아이의 영적능력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녀교육을 본받아야 합니다.

존 맥아더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1948-1960년 미합중국 장군이었습니다. 1950년에는 UN최고사령관이었습니다. 한 국전쟁당시 1/500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결과는 승리였고 맥아더 장군은 역사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단지 훌륭한 장군을 넘어서 위대한 신앙인이었음을

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 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

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경에는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들이 있습니다(한나, 유니게, 요게벳, 모니카). 부모들로부터 위대한 인물들이 키워졌습니다(이삭, 요셉, 사무엘, 다윗, 솔로몬, 모세, 다니엘).

자녀들을 아름다운 꽃이 되게 하십시오.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도록 키우십시오.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곳에 미를 발견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H. 스펜서는 “어린이는 부모의 행위를 비치는 거울이다”라

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어린이가 됩니다. 소년(소녀)가 자라서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자라서 아버지(어머니)가 됩니다. 아버지(어머니)가 자라서 할 아버지(할머니)가 됩니다. 신앙애의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길 들여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사랑의 채찍, 체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탈선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TV 폭력, 퇴폐 사회, 잘못된 인터넷문화로 어린이들이 탈선합니다.

잠29:15,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로 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꼭 데리고 다녀야 합니다. 어린이 현장에는 “어린

이들이 굶주릴 때 먹여야하고 어린이들이 병들 때 치료해주고 어린이들이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을 때 도와주고 어린이들이 위급할 때는 먼저 건지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가르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과잉보호해서는 안됩니다. 아이를 비뚤어지게 성장시키십시오. 독립심을 갖도록 키워야 합니다.

2. 어린이를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인권)

제자들의 생각은 어른들의 요구를 들어주느라고 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쏟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의 특성입니다. 겸손(마18:3-4), 순수함(고전

14:20), 믿음-신뢰성(살전2:7), 깨끗함(왕하5:14), 죄악에 물들지 않음, 섬김(막10:14-15)... 천국시민 어린이들은 천국의 표상입니다. 날개 없는 천사들입니다. 어린이들의 생활은 고스란히 하늘에 속합니다.

고전14:20,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옛날에는 어린이가 제물, 학살, 노예의 존재였습니다. 어린이는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귀한 존재입니다. 경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성차별하지 말고, 성추행하지 마십시오. 낙태 수술해서는 안됩니다.

격려하고 쓰다듬어주고 대화하십시오. 어린이 안전보호에 신경 쓰십시오. 문명국가일수록 노인을 존중하고, 청년을 지도하고, 어린이를 사랑합니다. 미국은 아동보호에 관심을 가장

귀한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어린이를 실족케 하지 마십시오. 화가 있습니다.

마18:6,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마18:7,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입게 하지 마십시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축복 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십시오(창49:1-33). 어린이를 가장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린이는 내일의 꿈나무입니다. 어린이도 죄인입니다. 어린이도 구원의 기쁨을 얻도록 주님께로 날마다 인도해야 합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어릴 때 회심했습니다. 폴리갑(9살), 아이삭앗츠(9살), 요나단 에드워드(7살), 헨리어드 비처(5살), 리차드 백스터(6살). 어린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어른은 여백에다 쓰고 어린이는 하얀 용지와 같습니다. 그림 그리는 대로 그려집니다. 찬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주 받는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미래의 주인공(Vision)으로 키우십시오. 어른들 볼 때 실망하고 낙담하다라도 어린이들에게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은 언제나 어린이들에게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은 어린아이같이 단순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안수기도 받고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예수님과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자라면 큰 인물이 됩니다. 가정의 달은 푸르름과 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꽃동산의 어린이들로 축복합시다.

leedaewoo19126@gmail.com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13-16절)

창조로 위장한 파괴에 현혹돼선 안 된다!

(2면에서 계속)

변화의 무게는 그의 어깨에만 있다고 믿어서, 자신이 우주의 이익을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만 하는 구세주다. 이것은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괴물의 정신상태와 같다. 그것은 창조로 위장한 파괴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진짜 세계의 폭군은 영웅으로 나타났다는 데 있다. 그 통치 아래

에 살던 시민은 이야기의 다른 면을 보아, 폭군의 등장을 구세주의 탄생으로 오해했다. 우리가 어떤 인간에게 신뢰를 두게 되면 그가 정치인이든 운동선수이든 지식인이든 그가 부패하기 쉽다는 사실을 놓칠 수 있다. 진정한 영웅은 등장할 수도 없거나 사기를 높이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미화가 제 어할 수 없는 위험한 자만심이나

권력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 보라색 타이탄인의 등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위협의 태세를 줄 것 같지는 않지만 타노스의 망상은 일상생활의 지도자에게서 선명히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권위를 너무 많이 가져간 상사나 항상 말로 대중을 기쁘게 하는 정치인이든지, 우리는 이들의 숨겨진 폭군의 모습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발뺏꿈치 아래서 이런 ‘망각한’ 시민을 비웃을 수도 있지만, 쉽게 설득력 있는 연사의 공허한 약속에 길을 잃을 수도 있다. 미묘한 감정이 폭군의 가장 좋은 권력의 통로다. 관계나 타당성이나 사랑에 대한 필요가 이용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가정된 영웅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폭군은 대중의 호소를 통해 세상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 지도자의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현신된

새로운 씨 뿌리는 추종자를 생성한다. 타노스가 블랙 오더에게 충성심에 영감을 주었던 것처럼 폭군은 부하의 열정을 키울 것이다. 우리의 정신을 발판으로 해비뿔어진 표제와 집단사고(groupthink)를 폭군이 하나의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지만 폭군과 더불어 생각 없이 따르는 사람들 모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크든 작든, 폭군은 물러나게 만들어야 하지만 잘 계획하고 울

은 자제로 시도해야 한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와 있듯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이것은 귀와 눈을 비이성적인 논리를 깨닫고 불식시키는 데 맞추고, 폭군의 말에 여전히 동요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보이고 행동으로 용기 있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벤저스는 전투에서 타노스의 사랑의 시각으로 독재자를 대항하라고 부름 받았다.

기본이 분명한 인생

집안형편이 가난해도 한결같은 가정들이 있다. 저들의 가정은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미래가 있어 보인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들 같다. 비록 지금은 어리고 약하게 보여도, 장차 기름 등불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밝힐 수 있는 귀한 재목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 어른이나 아이나. 그 가정 가운데는 저들이 지키는 불문율 같은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것을 본다. 아이들도 부모의 눈치만을 기준해서

집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좋고 부러운지 모른다. 이런 집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통 사람들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말한다. 비록 가난하여도 저들은 지킬 것을 지키는 가정이고 가문이다. 기본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런 집안을 보면, 비록 형편이 어려워 보여도 그런 가문의 애를 데려다 며느리삼고 싶고 사위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돈이 없다 뿐이지, 진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가정이기 때문이리라. 오늘날 조그만 일에도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어릴

어 그런 크리스천 가정이 있고, 신앙인이 있다면 과연 저들의 인생에 복이 있을 것인가? 가장 먼저 스스로 그 인생을 부정하는 모습 속에, 평생의 삶이 역을하고 원통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젊어서는 부모를 원망하고, 늙어서는 자식을 원망하는, 그래서 일평생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는 불행한 존재가 될 따름이다.

가정의 아름다움-참된 예배
가정의 영적인 기본기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가

이 어디 있을까? 그런 율법적인 생각들을 없애야 한다는 어른들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 애들은 새해가 되면 교회어르신들에게 단체 세배를 한다. 교회에서는 미리 어르신들에게 은행에서 뺏뺏한 돈을 모아서 세배돈 봉투를 만들어 드린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있다. '이건 새돈이니까, 현금하기 위해 따로 떼놔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기준이 분명한 가정

- 예배 회복, 가정 회복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저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순종해야 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동들을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본다.

손님이 오면 아이들이 어려도, 빈들의 땅아지처럼 뛰어들어다니지 않는다. 가난한 집인데도 아이들 표정이 밝고 명랑하다. 손님이 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인사를 한 뒤에 자기 일을 한다. 함께 식사를 할 때도 먼저 손가락을 들지 않고 반찬을 편식하지 않는다. 아이들 스스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뚝에 뻗어 들어 있는 그런 집들이 있다. 대단한 것이 아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원망거리가 되어 평생 동안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들이 있다.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고, 그 형제간에도 원수가 되는 그런 집들을 본다. 부모 없이 스스로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있을 것인가? 스스로 기저귀 갈아입고, 우유병에 밥만 들어 먹으며 자란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여도,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그들로 말미암아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모를 향해 자신의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다고 평생 원망의 존재로 규정하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영터러 같은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더불어

정에도, 구성원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본기를 갖추었을 때,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합당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가정의 일들인가? 그것은 가족 구성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배가 온전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문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가정들을 세우시고 원하시는 것, 참된 예배자의 가정, 그것은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움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가정 예를 들면, 옛날에는 현금도 다림질을 해서 정성을 다해 드리도록 가르쳤다. 오늘날에는 대체 그런 미신 같은 일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상한 것 잘못 가르쳤다고 혼을 내실는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기준이 혼란된 가정

기준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 가르침의 훈련이 꾸준히 반복할 때 그 교훈들은 아이들의 뼈속 깊이 새겨진다. 저들로 말미암아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미래가 있다.

중요한 것은 기준이 명백해야 하는 것이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예배이다. 하나님이 인생과 가정과 민족의 복을 위해 세우신 기준이 예배이다. 열왕기서의 왕들의 역사를 꼭 살펴보자.

(9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다윗은 천국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은 후에 신자의 영혼이 천국에 가지 않고 대기소에 머물다가 예수님 재림 후에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시애틀에서 Park

A: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목회상담을 하면서 몇 분이 이 문제에 대해 오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도 죽은 후 그 영혼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수면상태나 혹은 어떤 대기소에 머물다가 예수님 재림 후에 그 영혼이 비로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목사님들이 천국 환송예배라고 하면서 장례식에 환송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4절의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라는 구절은 성경해석학적으로 전후문맥을 잘 살펴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 전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살아있는 몸으로 하늘에 승천하신 내용이 나오입니다. 이것은

자가 죽으면 영혼은 어떤 대기소가 아닌 천국으로 직행

예수님이 살아서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림자인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지 그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후문맥을 따지지 않고 한 구절만을 자처 해석할 때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자가 죽은 후 그 영혼이 천국에 바로 가지 않고 어떤 대기소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머문다고 주장하면서 목사님들이 장례식에서 천국환송예배를 한다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자의 영혼은 죽어서 케톨릭의 주장처럼 연옥이나 선조림부 유아림보에 대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와와의증인이나 제철일신교는 영혼수면설을 주장하면서 사후에 영혼이 영적 실존으로 계속 존재하기는 하나 무의식적인 안면(安眠)상태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으면 믿는 신자의 영혼을 바로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누가복음 9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며 오늘(Today) 낙원에 나와 함께 가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자는 죽으면 바로 낙원(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16절, 믿음의 조상들 - 땅에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라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늘의 도성을 추구하였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22-23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자의 이름을 가지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총회(기쁨의 연회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은 신구약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성도들의 영을 말합니다. 천계의 승리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영혼은 죽으면 어떤 대기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제 38 회 학위 수여식

(38th Annual Commencement)

본 KAPC 직영 신학교인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은 남가주 보수 신학의 전당으로 지도자 양성을 다하는 중 올해도 졸업생을 배출하고 제 38회 학위 수여식을 이사님들, 교수님들과 귀빈들을 모시고 가지려고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 일시: 2019년 6월 1일(토) 오전 11시
- 장소: 개혁장로회 신학대학원 채플 (대흥장로교회 EM Chapel)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문의: 김동진 학감 (626) 675-8010

* 졸업식 후에는 친교실에서 리셉션이 있습니다.
* 교수님들은 학위 가운을 가져 오시고, 교수님들과 순서 담당자는 10시 30분까지 교수 대기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 이정현 박사 | 이사장 양수철 박사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310-749- 0577, 626-675- 8010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Table with subscription rates for 1 year: USA \$100, Canada \$110, Korea/East Asia \$190, Europe \$190, Japan \$190, Africa \$190.

Subscription form with fields for name, address, phone, and checkboxes for subscription type and language preference.

E-mail도도 동봉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년월일 신청인서명: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와 네팔의 문다 산탈(MUNDA SANTAL)



인도 북동부와 네팔의 문다-산탈족은 9개의 다른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들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인도의 비하르, 서부 벵갈, 오리сса 주에 분포돼 있다. 이 부족들 대부분은 비하르 주 남부의 초타나그푸르 고원 산지에서 살고 있다. 또 다른 일부는 평야에서 산다. 이 지역 외에도 인도 전역에서 농사와 공장노동자로서 널리 퍼져 있다.

힐선 북쪽 지역에 사는 7개 종족에는 인도와 네팔의 산탈, 부미즈, 코다, 마힐리, 호, 아가리아족이 있다. 나머지 2개 종족인 주안고, 가다바족은 인도 남부, 벵갈만 해안 인근에 살

고 있다. 문다어라고 하는 문다-산탈족의 고유 언어는 오스트로-아시아 어계에 속한다.

문다-산탈족의 부족문화는 산업화와 새로운 교통연락, 부족의 복지계획, 지역사회 발전 프로젝트 같은 외부영향의 충격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삶의 모습

문다-산탈 부족들의 기원과 관련된 전통은 불확실하지만, 원래 초타나그푸르의 밀립지대는 여러 토착부족들의 족장들의 통치를 받았다. 그러다 평야지대에 영국의 식민정부가 세워졌다. 1831-32년에 문다족의 반란이 있었고 1855-1858년에 산탈족의 봉기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9개 문다-산탈족 가운데 단지 부미즈족에게만 지도자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다른 부족에 비해 높은 사회적 지

위를 갖고 있다.

문다-산탈족 인구의 거의 80%가 생계로 농사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농촌가정은 방직업을 가내수공업으로 또는 마을 수공업으로 하고 있다. 사냥과 채집을 해 불충분한 농업소득을 보충하기도 한다.

오늘날 정부는 밀립을 보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동경작은 제한돼 있다. 또 관개지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은 다른 소득원이 개발됐는데, 북동부의 차 농장에서 일하거나 제철공장에서 일한다든지, 힌두교 지주들의 일용 노동자로 일하는 것 정도였다. 초타나그푸르 고원은 인도에서 광산이 가장 풍부한 지대이므로, 문다-산탈족의 일부는 광산에서 임금을 받는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가족을 위해 적당한 수입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

부족들 중 극소수는 무역을 하면서 살며, 일부는 전통적인 장인이거나 전문직 종사자다. 그러한 2개의 부족으로는 코다와 가다바족이 있는데, 코다족은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고 가다바족은 벽화를 잘 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힌두의 장인들이 부족들이 쓸 물건 대부분을 대준다.

이 부족들의 경제에 있어서는 매우 열리는 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컨대, 일부 마힐리 사람들은 읍내 시장에서 자기들이 만든 대나무 바구니 제품을 내다판다.

문다-산탈족이 사는 곳은 대개 강의 계곡과 밀립을 베어낸 침식지대, 광업과 산업지대에서 산다. 사람들 대다수는 웅기종기 모인 마을이나 길 이 하나인 마을에서 산다.

문다-산탈족은 공동 조상을 둔 씨족으로 나뉜다. 씨족 사람들은 다른 부족의 사람들과 종종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소규모 하위부족에서는 부족 내의 사람들끼리만 결혼하도록 허용한다. 또 주안고족을 제외한 모든 문다-산탈족에는 돌쿠리아(dhumkuria)라는 총각들의 공동거주지도 있다.

문다-산탈족에게는 풍부한 예술적 유산이 있는데, 특히 음악과 춤에 있어서 그렇다. 대부분의 부족 총각들은 무도장이 있어서 그 곳에서 마을

사제가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마을은 "추장"에 의해 운영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판차야트(panchayat)라는 종교학자 또는 승려가 자문을 한다. 부족 내의 대부분의 갈등은 토지소유권이나 결혼에 관련된 것이다.

신앙

문다-산탈의 부족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가치관, 구별된 정체성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부족들에 있어서, 대부분이 힌두교도이며 그 밖의 사람들은 전통종교를 지키고 있다. 돈 리차드슨(Don Richardson)의 "그들 마음에 있는 영원"(Eternity In Their Hearts)에서 우리는 그들이 섬기는 고대신인 "타쿠르 지우"(Thakur Jiu, 진짜 신)을 알게 된다. 그들이 "마란 부루"(Maran Buru)라는 큰 산맥의 신령을 무서워해 타쿠르 지우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자신들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조상이 현재의 땅으로 이주해오면서 마란 부루와 맹세를 하고, 위령제와 마술, 태양 숭배를 행하기 시

작했다.

오늘날, 그들의 최고 신은 태양신이다. 하지만 그들은 부족신 외에 또 힌두의 여러 신들을 받아들였다. 힌두의 마을 사제는 의식을 전문적으로 주관하는 자이며, 많은 힌두축제를 지킨다. 그들은 전능한 창조자와 "어머니 대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아가리아, 부미즈, 가다바, 주안고족 등 일부 부족들은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소수의 부족이 선교단체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있긴 하지만 기독교인은 아직 1%도 채 안 된다.

문다-산탈족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지역에서 복음을 들을 사람들은 마을회의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후에는 거의 즉각적으로 영접한다. 이 소중한 부족들은 추수하기에 이르렀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참 하나님에게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뿐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중국 공안, 가정교회 집단 급습...12곳 폐쇄

중국 공안이 텐안먼 사태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교회들을 급습하면서 상습적 기독교 박해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 순교자의소리(대표 현숙 폴리 목사)는 중국 각지의 가정교회에 지난 12일(현지시간) 공안이 들이닥치면서 주일예배가 중단됐다고 16일 밝혔다. 예배를 드리던 교인 중 상당수는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순교자의소리는 미국 인권단체인 차이나 에이즈의 조사를 인용해 샤먼 케이양 청두 상탄 상하이 등의 가정교회 12곳이 폐쇄됐다고 전했다.



상탄의 진상탄교회에는 이날 오전 9시쯤 공안들이 진입해 설교자의 입을 막았다. 공안과 함께 온 종교국 직원은 "진상탄교회의 복음활동이 금지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양 런아 이개회교회에도 같은 날 오전 공안들이 예배당문을 부수고 난입했다. 순교자의소리는 "100명쯤 모여 예배드리는 곳에 80명 가까운 공안들이 들어와 예배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공안이 교회를 급습한 표면적인 이유는 종교 행사와 헌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런아이개회교회를 폐쇄하면서 공안은 "목사와 교인들이 교회에서 종교행사를 하고 종교적 형태의 기부를 받는 걸 적법하다고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음 달 4일은 텐안먼 사태 30주년이다. 중국 정부가 이에 자극을 받았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현숙 폴리 목사는 "중국 기독교인들 사이에선 이번 탄압이 텐안먼 사태 30주년을 앞두고 진행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면서 "12개 교회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탄압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세계적인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중국 내 접속을 차단하고 반체제 인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에도 베이징 최대 규모의 비인가 교회인 소양교회(장사오핑 목사)에 대해 예배 및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공안은 1000여명의 교인이 모인 교회를 급습해 교회를 폐쇄하고 수백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다.

"성폭행 당해도 낙태 불허" ...들끓는 엘라베마

미국 엘라베마주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낙태마저 막는 조강력 낙태금지법이 통과되면서 논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할리우드 스타들은 낙태 경험을 스스로 고백하는 '유노미(#youknowme-당신은 나를 알고 있다)' 운동을 벌이며 낙태금지법 반대에 앞장섰다.

케이 아이비 엘라베마 주지사는 15일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낙태금지법안에 서명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낙태 시술을 한 의사

는 1급 살인 범죄나 1급 성폭행 범죄 자 처럼 최고 99년 형에 처할 수 있다. 미국 역사상 낙태 금지 기준과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낙태금지법이다.

이 법은 그러나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1973년 연방대법원이 헌법상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인정해 '로 대 웨이드 판결'에 어긋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소송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이 과거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73년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까지는 여성의 의지와 선택으로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다. 낙태금지법 찬성론자들은 최근 이 점을 노려 잇달아 낙태금지법안을 만들고 있다. 아이비 주지사도 "엘라베마의 낙태금지법은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재심하도록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이 결정되자 할리우드 스타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다. 영화 레지던트티블 시리즈로 유명한 여배우 밀라 요보비치는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여성도 낙태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필요할 때 안전한 낙태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썼다. 그는 2년 전 임신 4개월 상태로 영화 촬영을 하다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미국 드라마 굿플레이스에 출연한 영국 여배우 자밀라 자밀도 트위터에 "어렸을 때 낙태를 했다"고 고백했다.

할리우드 배우들이 낙태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한 것은 배우 비지 필립스의 제안 때문이다. 필립스는 트위터에 미국 여성 중 4분의 1이 45세 이전에 낙태한다는 내용의 통계를 언급하며 "당신은 '나는 낙태한 여자를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글쎄, 날 알겠지(Well, You know me)"라고 썼다. 그러면서 "만약 당신이 낙태 경험이 있다면 그 사실을 공유하고 수치심을 끝내자"고 썼다.

가수 레이디가가는 "엘라베마주의 낙태 금지는 잔혹한 일"이라며 "이 법안으로 고통받을 모든 여성과 소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트위터에 썼다.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캡틴아메리카를 연기한 배우 크리스 에반스도 트위터에 "로 대 웨이드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중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투표가 중요하다"고 썼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배아 심장박동을 기준으로 임신 중단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됐을 때도 배우 제시카 채스테인, 존 레귀자도 등이 나서 조지아주에서 영화를 촬영하지 말자고 제안했었다.

이들로 떠난 홀트 여사

한국의 장애아동과 고아를 위해 평생을 살아

온 말리 홀트(Molly Holt, 한국명 허만리) 홀트 아동복지회 이사장이 17일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4세.

홀트아동복지회는 말리 홀트 이사장이 이날 오전 6시30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밝혔다. 홀트 이사장은 2012년 골수암을 진단받은 이후 투병 중이었다.



1935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화이어스틸에서 태어난 홀트 이사장은 1956년 한국에 입국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1967년부터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홀트복지타운 원장과 홀트아동복지회 이사,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홀트아동복지회 설립자인 부모의 뜻을 이었다.

홀트 이사장은 60여년간 장애인과 고아, 그리고 미혼인 부모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특히 팔순을 넘긴 고령에도 경기도 고양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300여명의 중증 장애인들을 돌봐, '말리 언니'로 불리기도 했다. 자신의 방도 따로 없었다. 장애인 4명과 더불어 한 방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과거에 비해 한국의 사회복지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힘들수록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하고 이들을 도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935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화이어스틸에서 태어난 그는 오래근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뒤 1956년 홀트아동복지회 간호사로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60년 이상 한국에서 고아와 장애아동을 위해 헌신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채 홀트복지타운의 장애아동을 돌보는데 평생 헌신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피폐한 한국에서 영아원·보육원 간호사로 일했고, 경남과 전남북을 돌며 무의촌 주민의 질병예방에도 힘을 쏟았다.

뇌성마비 등 특수재활의학에 관심을 갖고 미국에서 연구를 하기도 했다.

2000년부터는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으로 일했다. 국민훈장 석류장, 대한적십자사 인도장 등을 받았다.

미국 억만장자 졸업식서 '파격 축사'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 후 현지 이슬람교도와 "여기 있는 졸업생 여러분의 모든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가 19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모어하우스 칼리지 졸업식장. 단상에서 축사를 이어가던 장년의 남성이 깜짝 선언을 했다. 평범 아래에서 무심하게 축사를 듣던 학생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한 거야?" 객석

에서 수군 거림이 오간 것도 잠시, 식장은 졸업생과 학부모들



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학생 수백명은 그를 향해 "우리의 MVP"라고 목청껏 외쳤고, 부모들은 서로 부둥켜안았다.

이 학교 졸업생들에게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선물을 안긴 주인공은 사모펀드 비스타 에퀴티파트너스 최고경영자(CEO) 로버트 F 스미스(56)다. 이날 졸업식 연사로 나선 그는 축사 도중 올해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준비된 연설문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올해 졸업생 396명의 대출금은 4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스미스는 지난해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를 꺾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 최고 부호에 오른 인물이다. 재산은 50억 달러에 달한다. 모어하우스 칼리지는 흑인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대학이다.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와 영화감독 스파이크 리, 배우 새뮤얼 L 잭슨 등을 배출했다. 스미스는 이 학교 졸업생은 아니다. 콜로라도주 덴버 출신인 그는 명문 코넬대와 컬럼비아대를 졸업했다.

졸업생들의 빛을 탐감해주는 대가로 스미스가 내건 조건은 거창하지 않았다. 스미스는 "학위는 여러분이 신세를 진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과 열정을 헌신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라며 "앞으로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을 회고하며 "선생님들은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는 것을 가르쳐주셨다"고도 했다.

스미스는 '통 큰 기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선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미 언론들은 그가 "여러분의 성취에는 본인 노력뿐 아니라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했다. 자신의 성공에는 주위 희생과 도움이 밑거름이 됐음을 기억하라는 취지다.

꿈에서나 나올 법한 선물을 받은 학생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약 2만5000 달러의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한 학생은 "스미스 말을 듣고 눈물이 차올랐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새 출발을 하게 됐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총액은 1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

다른 남학생은 "내년 4만5000 달러 빛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스미스의 발표를 듣고 기절할 뻔했다"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 대출금 때문에 앞으로 10년을 더 일할 예정이었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다.

중세의 이단

과연 마녀가 실제 인물일까? 코가 고부라지고, 허름한 검은색 옷을 입고, 흉한 이빨을 보이며 흉한 웃음을 지으며, 자광이를 타고 다니는 여인의 모습을 길거리에서 만난 본적이 있는가? 이 글의 독자들은 대부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소설이나 만화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에 불과하다고 말할 것이다.

중세 시대의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답을 하였을까? 시기적으로 12세기 전과 후의 답이 현저하게 달랐을 것이다. 변화의 중심에는 교회의 역할이 있었다. 이전에는 사탄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로부터 지닌 악한 힘을 공급받아 마법을 행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믿었다. 마법의 실재를 부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태도가 달라졌다. 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중세 기독교 세계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적이었다. 교회가 절대적인 권위를 앞에서 중세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도전하고 방해할 수 있던 유일한 존재로 여겨진 것이 있었다. 바로 창조이후 줄곧 활동을 그치지 않았던 사탄이었다. 교회는 각 시대의 다양한 환경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이단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믿었다.

교회의 입장에서 이단을 색출하고 처단하는 것은 곧 사탄의 활동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악마 숭배 및 마법과 연관되어 있는 자들을 악한 이단자로 간주하고 제거하는 일을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결국 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악마의 동반자라고 낙인찍고, 12세기에 합법적으로 종교재판을 설치하여 그들을 말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당시 중세교회가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일에 그토록 관심을 쏟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입혀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을까? 역사가들의 답은 모두 부정적이다. 이미 그들은 영적의 힘을 상실한지 오래되었다. 성직자들 사이에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되어있었고, 사치스럽고 호화스런 삶에 취하여 성직매매와 징세제도로 부를 축적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타락과 부패를 지적하며 개혁을 부르짖는 힘찬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중세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대상은 실상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의식화된 신앙행위와 제도를 거부하는 자들이었다.

교회를 대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감당할 것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실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중세교회의 관심은 오직 절대적인 힘을 유지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교회의 권위를 도전하는 세력에 대하여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근절하겠다는 일념을 지녔던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직이 강화되었고, 그 방법 역시 무자비해졌다. 이로서 이미 어둠에 잠긴 중세교회는 더욱 깊은 영적 수렁에 빠

졌던 카타리파와 알도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여성들 때문이었다. 이 운동에 참여하였던 여성들의 동기는 매우 순수하였다. 사회로부터 괘시를 받거나 경제적 불만을 받아서가 아니었다. 중세교회가 제공하지 못하는 영적인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알도파는 16세기 종교개혁 전통과 연결된 유순하면서도 폭 넓게 전개된 개혁적 단체였다.

교회의 입장에서 여성들이 이단에 가담하는 것 이외에도 여성들의 신비

그뿐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자기고행과 수련을 예수의 육체적 고통으로 연결시키려 하였다. 그러므로 자기 몸을 채찍질하기, 피고름 마시기, 뜨거운 난로나 얼음이 가득한 물에 뛰어들기, 칼로 자해하기, 몸에 못질하기, 신체 일부를 절단하기, 극단적인 금식으로 굶어죽기,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대로 재현하기 등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신앙의 굳게 하는 방법으로 간주하였다.

결국 중세 여성신비주의의 등장은 불행하게도 교회의 입장을 강화하는

참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이 마녀라는 답을 얻어내기 위하여 잔인한 고문을 도입한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불로써 몸을 지지거나 물에 빠뜨렸다. 또한 눈물을 흘리게 강요하거나 바늘로 찌르거나 하였다. 또한 뜨거운 불 위를 걷게 하였고, 목에 칼때기를 집어넣고 물을 계속 부었고, 다리를 고정시키고 큰 망치로 부수고, 머리에 조금씩 구멍을 냈고, 손을 뒤로 묶어 천장에 매달고 다리에 무거운 추를 달아매기도 하였다.

그 누구도 이런 고문을 이길 방법이 없었다. 자신이 마녀라고 고백을 해야 중단될 수 있었다. 마녀사냥은 종교적 학살이었다. 수많은 여인들이 죽어갔다. 15세기 도미니크 수도사인 인스티토리스와 스프링거에 의해서 저술되었다고 알려진 '마녀의 망치'가 있다. 서문에 교황 8세가 1484년이 발표한 교서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바람'이란 내용을 실고 있다. 마녀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책에 중세교회가 어떻게 마녀 처리법이 기록되어 있다. 3가지이다. 1)물과 빵만 주고 피고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감금시켜 둔다. 2)약속한 대로 처형하지 않고 감금해 둔다. 그런 후에 처형한다. 3)담당재판관을 교체시킨다. 그리고 교체된 재판관이 사형을 선고한다.

중세시대 마녀재판은 결코 교회의 영적 순결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유럽에서 끝까지 실추된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성도들을 빠르게 이끌어야 할 기독교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량한 여인들을 마녀로 몰아간 것이다. 나아가서 그 당시 교회가 경제구조의 변화와 기후 및 질병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때, 악마를 숭배하고 힘을 얻는 마녀들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이다

모진 고문 후 마녀들은 공개처형을 당했다. 옷을 벗겨 불에 태우는 과정은 많은 사람들의 유희거리가 되었다. 중세교회의 마녀재판은 그 후에도 지속되었다. 더욱 치밀하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하였다. 18세기에 가서야 점점 줄어들다가 끝나게 되었다.

기독교를 포기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마녀사냥은 이 시대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목적인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마녀사냥을 일삼았던 중세교회는 개혁의 대상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와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 (35)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저에게 된 것이다.

중세여성

중세교회에 나타난 커다란 변화는 여성들의 위치였다. 초대교회 이후 거의 10세기가 흐르는 동안 여성들의 활동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

주의적 신앙으로 인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12세기 중반에 여성수도원을 찾는 성도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한 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한 자들이었다.

이들은 신학적 교육을 받아 지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직접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전통적 신앙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더욱 적극적으로 교회 안과 밖에서의 여성들의 영향력을 제어하려 하였다.

마녀 재판

교회의 입장에서 마녀는 새로운 이

교회 권위 도전세력을 이단으로... 합법적 종교재판소 설치

마녀재판은 실추된 교황과 교회 권위 강화하기 위한 방편

나 중세교회의 역할 속에서 성도들이 영적 자유를 갈망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교회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다.

12세기 중세 사회 및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었다. 항상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며 가족을 돌보는 전형적인 모습으로부터 탈피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종교적인 삶에 대한 동경이 증가하면서, 그 당시 유행하던 방랑 설교자들을 따르며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수가 급격히 많아졌다.

중세교회의 입장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 방관할 수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들이 이단으로 간주하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에 관심을 지녔었다. 환상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전해 듣는 것, 여러 상징들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여성 신비주의는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관심을 가졌으나, 13세기 이후 스스로 고통을 받는 일에 몰두하게 되면서 위험한 경향을 종교적인 상식으로 승화시키려 하였다. 몇 가지 살펴보자. 그들은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영적인 몰입이라고 간주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스런 계시를 받거나 초자연적인 예언능력을 얻고, 그를 찬양하고 그의 감미로운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을 사모하였다.

단이었다. 그러므로 13세기가 되어 마녀사냥이 시작되었다. 교회는 실제로 마녀가 존재한다고 가르쳤다. 주위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마녀 때문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개인 또는 주위의 삶 속에서 수용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바로 마녀 때문이기에 누구든지 수상한 여인을 발견하면 즉각 고발하도록 하였다.

처음과 달리 세속 법정이 마녀재판을 담당하였다. 마녀로 지목된 여성의 재산을 몰수하고 재판과 관계된 모든 비용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였는데, 유죄의 여부를 결정짓기 위하여 심문을 중심하는 진행하는 것이었다. 당사자에게 사실을 말하게 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ing: 금관교회, 든든한교회, 로마인교회, 새에덴교회, 성문교회, 성실교회, 성일교회, 수정교회, 승중교회, 시온소교회, 신길교회, 신천교회, 신촌교회, 안암 제일교회, 양곡교회, 양성교회, 장위제일교회, 주안교회, 창대교회, 청주주님의교회, 충신교회.

성경도 신앙(79) 교회와 국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심지어 프로테스탄트 내에서도 교회 침체가 계속되는 때에 그런 모습이 드러났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도 이런 큰 대조가 분명하게 그려져 있다.

7)신약성경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 국가교회

신약성경 전체 정신은 이 국가교회 개념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신약에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대조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신약의 진수는 거듭남이기에 신약성경의 인도함을 받자고 한다면 국가교회와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교회문제나 교리문제나 기도서를 세속정부로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지지하기 위한 장절로 구약성경만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불신자들은 신령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그런 영역에 대해 전혀 무능한 자들이다.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지혜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고전 2:14). 그러므로 국가교회나 기독교국가라는 여지가 신약성경에는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통치자나 왕이나 임금이나

것은 더욱더 삼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개념은 신약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그 정신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3-4절에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을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말씀한다.

그런 다음에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말씀한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생활과 충도를 일으키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생활이다.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될 때에 국가의 영역과는 전혀

국가와 교회는 다른 영역...충성과 합일 개념은 잘못 신약성경엔 국가교회나 기독교국가 여지 전혀 없어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 말씀하면서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그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할 때에 교회의 영역에서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비록 그가 이 세상의 한 나라에 소속하기는 하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시민권은 다른 나라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약성경 전체에서 항상 그려져 있는 분명한 구분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국가와 하나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또 교회와 국가가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3장, 17장, 18장에서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대조적으로 다른 편에 세상의 국가들이 있다.

13장에 “짐승”이라는 말과 “짐승의 형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은 자기 권세를 영적인 세력인 교회에게 넘겨주는 세속권위를 가리킨다. 그래서 그 세속 권위를 받은 교회가 “짐승의 형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종류의 권위를 행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교회의 경우에서 우리가 보아온 모습이다.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그 지도자는 한 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지, 국가의 머리로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만일 그가 자기의 권세와 임장과 국가의 수장으로서의 특권을 사용하여 자신의 지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독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는 마태복음 23장 25-28절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신다. 큰 자가 다른 자들을 섬기는 것이 세상 나라지만, 이 영적인 나라에서는 종이 되어야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만일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기독교회 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져야겠다고 요구한다면, 교회는 그 대통령에게 다른 사람과 똑같은 좌석에 앉으라고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회 밖에서 인정받는 모든 구분과 차별되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교회와 국가 사이가 하나라는 전체 개념, 또한 그 둘 사이에 충성과 합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이 얼마나 신약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위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영성칼럼



이희영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주바라기 히스기야

참고 성경: 왕하 19-25장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왕하 18:5, 6).

히스기야왕은 다윗 아래로 수많은 왕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만나는 구비 구비마다 위기를 하나님의 승리로 이끈 기도의 사람이다. 태산 같은 어려움은 단지 그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걷는 훈련에 불과할 뿐 그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통곡하고 매달리고 겸비하면 심지어 해 그림자를 뒤로 심도를 물려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여 연합하는 기회로 삼아 주셨다.

아무리 고난이 대단해도 그저 옆드리고 주를 바라고 기다리면 뺨이 되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든든한 뺨에 힘입어 신바람 나는 히스기야다. 그러나 진실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지라... 이리도 주와 가까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철저히 받고 형통하니 조그만 편안해도 맛이 가는 것이 인간이 아니던가?

외적을 통쾌히 물리침에 정직한 히스기야가 이긴 것이 하나님의 공을 잊고 내 덕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는 못한다. 하나 슬그머니 하나님이 문제 해결사 돼주신 전적인 은혜를 내 믿음 덕이라고 변형해 자기에게 영광 돌리려는 교만의 싹 수를 보시고는 이번엔 죽을병을 보내어 건강을 담보로 잡으신다.

이에 또 옆드리어 벽만 바라보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또 히스기야의 손을 들어 주신다. 이에 너무도 좋아서 자기 보물 창고를 하나도 남김없이 병문안 온 바벨론사자들에게 다 내어 보이는 히스기야가 아닌가...

하나님이 자신의 든든한 뺨임을 자랑하고파 하나님은 관심 없고 오직 물질에 눈 어둔 이방인들에게 완전 속속들이 재산을 다 보여주고 자랑하는 히스기야이다. 건물생성이라! 어리석은 히스기야의 이생의 자랑이 바벨론의 탐욕을 자극해 유다의 멸망을 재촉하게 되는 불씨가 될 줄임에야...

사랑하는 주님!

가장 인생의 위기는 고통의 시기가 아니라 고통이 끝나고 승리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진짜 위기이네요. 기도 응답 받고 승리감에 취해 기쁨 때가 정작 위기 감각이 떨어져 경계를 늦추게 되어 간 함께 달려온 일생의 과업을 허무는 실수를 범하는 어리석음에 처하게 됨에 기쁨도 슬퍼도 괴로워도 힘이 넘쳐나도 맘의 경계를 풀지 말고 주 그리스도안에 거함은 우리의 안전한 포구이며 우리의 생애를 아름답게 열매 맺고 마감할 수 있는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히스기야의 생애를 깊이 생각하며 마음을 겸비합니다.

잘 가다 성공 관리를 잘못해 자손에게 패망의 길을 열어준 히스기야를 빼어난 거울로 삼습니다. 주바라기로 오직 마음의 중심을 굳게 하고 안정된 심정으로 평안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히 사명을 감당토록 내게 지원하는 심령 위에 기쁨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이신 주님의 이름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heenlee55@han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p>뉴욕망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기도회: 오후 09:00 세백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p>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회: 오후 08:45 세백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65-2584, www.fc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세백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세백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백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348),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p>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5:30(월-토)</p> <p>www.pcpcny.org, Tel. (516)387-8940, 8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백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p>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3:15분 청년예배 오후 3:20분 세백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세백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양예배: 오후 1:00</p> <p>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p>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7:00 수요예배: 저녁 9:00 7:14종보기도회: 아침 7:40 윤,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p>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p>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세백기도회: 매일 오전 6:30(화-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p> <p>Tel. (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p>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p>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포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3-010</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p>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담임목사: 임환근 목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p> <p>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pe MEX(멕시코)</p>					



목회서신

결심과 눈



강인국 목사 (미시아나한인교회)

“아내에게 잘해주려고 노력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잘 대해 주겠다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순간, 메시지를 들던 청중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부부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좀 더 잘해 주겠다고 결심하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불화하는 것을 보게 된다. 사람의 결심은 신뢰할 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런 결심과 노력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먼저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꾸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자신보다 낮은 존재, 밤이나 행여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

한다면 아무리 아내에게 잘해주겠다고 결심하여도 별 의미가 없다. 아내를 종으로 생각하면 종에게 잘해주어야 얼마나 잘해주겠는가?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아내를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자신의 아내에게 잘해주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악어의 눈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어떤 핑계가 생기면 이전보다 더 고약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하지만 아내야말로 정말 귀한 존재요 보호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속 깊이 인식하게 되면, 남편은 저절로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된다. 사회나 단체에서 높은 직위나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약자를 대하는 사

건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 없이 들려온다. 그들은 강자는 약자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양의 문화가 수직적인 관계이다 보니, 한국 사회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다. 그런 것을 보고 자란 사람은 자신이 권위의 자리에 앉는 순간 자신의 하급자에게 무례하게 대하기 시작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결작품이고(엡2:10), 하나님의 자녀이다(벧전2:9).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폄하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모든 사람은 부모의 귀한 자식이요, 부모의 자랑이요 기쁨

이다(시127:3). 만약, 내 자식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무시를 당한다면 나의 마음이 어떠할까? 아마 피가 역류하고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까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요3:16),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마6:26).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영혼의 가치를 뺏속 깊이 각인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약자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먼저 바꾸고 사람을 대하게 된다면 이 세상은 좀 더 평화롭고 아름답게 변할 것이다. dannyinkang@gmail.com



CTS 아메리카 주최 2019희망나눔콘서트에서 전출연자들과 청중들이 찬양하고 있다

지역 초등학교에 장학금 전달

CTS아메리카 주최 2019희망나눔콘서트

CTS아메리카 주최 2019 희망나눔 콘서트가 18일 오후 7시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에서 열렸다. 엄미나 아나운서 사회와 장원욱 목사(새생명비전교회) 기도로 시작된 콘서트는 CTS이성합창단, CTS여성합창단(이상 지휘 김명옥)이 ‘왕이신 나

의 하나님’, ‘성도여 다함께’, ‘소원’ 등 성가곡과 찬양곡을 불렀으며 딜리버러스 앙상블(지휘 최은애)이 공연했다. 이어 CTS여성&혼성합창단이 딜리버러스 앙상블의 연주에 맞춰 ‘송축해 내영혼’을 불렀다. 그리고 CTS iDream콰이어(지휘 강민석)가 뮤지컬 작

개요 중 ‘Why’를 불렀는데 짜임새 있는 공연으로 청중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 새생명비전교회에서 출범한 크리스천문화센터(Center for Christian Culture, CCC)의 CCC뮤지컬 챔버싱어스(지휘 김혜성)와 CCC어린이합창단(지휘 정필아)이 공연했다.

이어 CTS스트링앙상블과 CTS챔버오케스트라(지휘 박선규)가 ‘Divertimento in D major, K146’, ‘Redentzky March’를 연주했으며 전출연자들이 ‘축복송’을 불렀다.

이날 콘서트는 이동진 목사(성화장로교회, CTS아메리카 사무)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는데 글랜펠리스 초등학교(교장 캐린 솔라이안)와 헌팅턴 드라이브 초등학교 음악교사인 샘리우 교사에게 전달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동요사랑회 주최 제17회 동요부르기대회에서 전출연자들과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대상 김유진, 특별상 방진호 어린이

미주동요사랑회 주최 제17회 동요부르기대회

미주동요사랑회(회장 조현주) 주최 제 17회 동요 부르기 대회가 18일 오후 3시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조현주 회장은 “푸르른 5월에 어린이들의 동심을 부모들과 친구들과 나누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제 17회

동요 부르기 대회가 미주 어린이들에게 모국어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의 통로로,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추억하며 여우러지는 음악 한마당 잔치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혜원 동요사랑회 이사 사회로 시작된 대회는 독창부와 중창부별로 나눠 열렸으

며 독창부문은 유치부(Pre-K)와 초급(1-3학년)에서 각각 11명이, 중급(4-6학년)에서 9명이 참가했으며, 중창부문은 6팀이 참가했다.

다음은 제 17회 동요부르기대회 시상자 명단이다.

△대상: 김유진 △특별상: 방진호(이상 중급) △최우수상: 김하린(유치부), 김정현(초급), 김사랑(중급), 코헝가초등학교 중창단(중창) △우수상: 송소피, 두리(유치부), 매디슨 토마스, 이소안(초급), 히오리노 안젤리나, 주요한(중급), 아 기공중창단(중창) △장려상: 김다현, 김소명, 김리브(이상 유치부), 김지윤, 박세상, 이인한(이상 초급), 진영아, 장하나, 이재휘(이상 중급), LA시온교회 한글학교, 나성영락교회 한국학교(이상 중창) △고운목소리상: 이재호, 변다나, 한이래, 배넷노아, 이재원(이상 유치부), 김하은, 최아인, 강은율, 이예안, 김해린(이상 초급), 강하울(이상 중급).

(박준호 기자)



2019 국제전도폭발 미주 한인 지도자 대회가 덴버할렐루야교회에서 열렸다

17개 교회 34명과 스텝 7명 참석

2019 국제전도폭발 미주한인 지도자 대회

국제전도폭발 미주한인본부(대표 이희문 목사)가 주최한 2019 국제전도폭발 미주한인 지도자 대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덴버할렐루야교회(김명수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2017년 처음 시

작한 이래 3회째로 모이게 됐으며 올해는 미주 전역과 캐나다에서 17개 교회 34명의 각 교회 전도폭발 담당교역자 및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7명의 미주한인본부 스텝들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국제전도폭발 회장인 존 소랜슨 총재와 내셔널디렉터 랜달 우드 목사가 참석해 향후 전도폭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미국 교회들의 상황을 나눴다.

또한 선정된 아래의 6개 교회들(주님의영광교회: 전도폭발의 시작, 뉴욕프라미스교회: 전도폭발 정착, 캘거리한인장로교회: 전도폭발 활성화 방안, LA기쁨의교회: 지역교회의 섬김, 은혜한인교회: 시니어 전도폭발, 볼티모어벤엘교회: 전도폭발과 선교)이 각 교회별로 어떻게 전도폭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지 교회의 사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3월에 있었던 제 70차 국제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 결산 보고의 시간도 가졌다.

(기사제공: 국제전도폭발미주한인본부)



케이타운 호프 주최 정신건강세미나가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마음을 열어라” 주제

케이타운 호프 주최 정신건강 세미나

케이타운호프(회장 박소연) 주최 정신건강 세미나가 18일 오후 1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렸다. “마음을 열어라”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박성심 가족상담치료가 ‘서로를 살리는 소

통의 방법’을, 장원철 신경내과 전문가가 ‘치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소영 임상심리학 박사가 ‘노인성 우울증-이젠 내병’이란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박성심 가족상담 치료사는 “사람의 마음은 변치 않으며 내

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며 “더불어 같이 살아갈 사람이 있고 가까이 기댈 곳이 있는 관계가 있는 자들이 정신과 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남편 아내 자식을 더불어 사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어려움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장원철 박사는 “치매는 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뇌에 여러 가지 기억력 감정조절이 저하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게 하는 것”이라며 “치매는 예방보다 저항력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양질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축복해 주셨는가? 선민이냐가 무조건 내 새끼하고 그냥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좋다 그러셨는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왕들이 앞장 서 우상숭배를 조장하고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조공 바치던 별장 아니었던 갈대아 사람들을 강성하게 일으켜, 바벨론 대 제국을 만들게 하고서 저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본다.

그러나 예배가 온전하고 하나님 잘 섬기던 다윗의 시대를 보라. 그의 예배가 온전하였을 때, 다윗시대에는 주변나라가 일어 서지를 못한다. 하나님이 놀려 버리는 것을 본다. 그러나 예배가 시시해지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초라하기 짝이 없으면 어떻게 되었던가? 별 것 아닌 나라들이 눈앞에 나타나서 대적을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주변에 도둑놈 사기꾼들이 몰려오는 것이다. 세권에서의 야망의 가정처럼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들이 더한 재앙을 가져오는 것을 본다. 그때 우리는 야망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왜 내 주변에 도둑놈 사기꾼들이 많을까? 왜 우리 가정에 온전한 회복의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가장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한다. 나의 예배가 실재되고, 나의 신앙 없음이 우리 가정과 자신

에게 어려움을 부르고 조장한 것은 아닌 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배드림-온전한 가정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예배 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내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다. 보통 우리들의 경제형편이 좋은가? 그렇지 못한가를 판단할 때, 개스값을 기준해서 볼 때가 많다. 개스값이 올라가면 삶이 어렵겠네 하고, 그 값이 떨어지면 살기가 좀 나아 것이라고 보통 말한다. 그러나 사실, 돈 있는 사람에게 개스값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상관없는 것이다.

신앙이 때로는 엄연다운 한 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을 친다. 가정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 금방 망할 것처럼 이리저리 쉽게 흔들리기도 한다. 그러다가 나눔의 아픔을 겪기도 한다. 왜 그런가? 인생이 가지는 영적인 파위가 없기에 그러하다.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도 요동함이 없을 것이다.

고난 앞에 왜 흔들림을 떠는가? 믿음으로 표현되는 영적인 힘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파라과이의 개미는 작은 야자열매만 떨어져도, 천지가 깨버렸다고 난리를 친다. 우리가 개미같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늘 인생이 큰일로 요동을 치고 난리를 할 것이다. 그런 이들이 있는 교회는 항상 큰 일이 생산 될 것이며, 교회가 은혜가운데 잔잔할 일이 없을 것이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부부, 부모와 자식, 자녀들 간에 믿음의 영적연애가 크고 굳게 자리하고 있어야 온전한 가정을 이루며,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 중심에 예배가 있다. 교회에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드러지는 온전한 예배가 그의 심령과 가정을 온전케 할 것이며, 바위같이 단단한 영적인 힘으로 인해 거친 풍랑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가정은 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가정의 연약함을 회복하고자 할 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울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말씀 앞에 자기를 항복시키는 것이다. 가정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다. 자녀들의 불충을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올려드려야 한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해서라도 나아와야 한다.

예배가 회복될 때, 교회생활이 분명해질 때, 설교가 온전하게 심령에 젖어들 때, 은혜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힘이 회복을 가능케 한다. 그 영적인 힘은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들을 제어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가정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 깨어짐과 상처의 흔적이 많은 이 세대의 가정들 가운데, 온전함과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한다.

기사제보 편집문의 광고문의 NY: nychpress@gmail.com LA: lachpress@gmail.com

동부교계 게시판



할렐루야 2019뉴욕복음화대회 2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이 주최하는 할렐루야 2019 뉴욕복음화대회 2차 준비기도회가 6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뉴욕장로교회에서, 3차 기도회는 6월 20일(목) 오전 10시30분 뉴욕성결교회에서 열린다. 4차 기도회는 7월 1일(월) 열리며 장소는 미정.
 ▲문의: (718)279-1414

뉴저지 2019 호산나전도대회
 뉴저지교협(회장 홍인석 목사)이 주최하는 2019 호산나 전도대회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60:1)”라는 주제로 6월 7일(금)부터 9일(주일)까지 한소망교회에서 개최된다. 집회시간은 금, 토요일은 저녁 7시30분, 주일은 오후 5시다. 강사는 이승중 목사로 이민교회 차세대사역기구인 어깨동무 사역원 대표이며 KWMC(한인세계선교협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0일(월) 오전 10시에는 “차세대 양육과 통일선교”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도 열린다. 여린이 VBS는 성인대회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킨더까지의 조한나강 전도사(언덕위교회)가, 1-5학년은 김유니스 전도사(뉴저지은혜와사랑교회)가 담당한다.
 ▲문의: (201)384-8500

ATS 한인동문 야유회
 ATS 한인동문(회장 김연수 목사) 야유회가 6월 3일(월) 뉴저지 러스덕 피크닉 에어리아에서 열린다.
 ▲문의: (646)464-2448 이재두 총무

뉴저지새언약교회 설립20주년 기념음악회
 뉴저지새언약교회(김종국 목사) 설립 20주년 기념 멕시코 유카탄 선교기금 모금 음악회가 6월 23일(주일) 오후 6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카메라타뉴저지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 음악회는 오페라로 재탄생한 드비시의 ‘탕자’를 연주한다.
 ▲문의: (201)694-2855

뉴욕장로성가단 제 15회 정기 연주회
 뉴욕장로성가단(단장 김재관 장로, 지휘 이다니엘 장로) 제 15회 정기 연주회가 6월 9일(주일) 오후 6시 퀸즈한인교회(김바나바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는 밀알 브라스앙상블, 뉴욕사모합창단, 필그림 선교무용단, 소프라노 조애실, 바이얼리니스트 유아나 등이 찬조 출연한다.
 ▲문의: (917)753-0999



뉴욕어머니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행복합니다” GKWPA 어머니기도회 어머니날 기도회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GKWPA) 산하 세계 여성 기도운동 및 선교사역인 어머니기도회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기도하는 어머니는 행복합니다”란 동일한 표어를 내걸고 중남미와 한국대구와 뉴욕에서 각각 진행됐다. 특별히 글로벌연합회가 제정한 어머니기도회 기념 뱃지를 각 지역 어머니들 가슴에 달아주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엘살바도르어머니기도회(회장 황은숙 선교사)는 8일 어머니날 현지인교회에서 50여명이 참석해 예배와 기도회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황은숙 선교사 인도로 찬양인도 샌드라 자매, 특별찬양 그리셀 집사 황은숙 선교사, 설교 칼로스 목사(현지인 목사), 선물증정 및 축도 촬영진 선교사 순서로 진행됐다. 콜롬비아어머니기도회(회장 김혜정 선교사)는 3일 바울선교교회에서 김혜정 선교사의 말씀과 기도로 진행됐다. 김혜정 선교사는 “어린 나이에 가정폭력 및 성폭행의 피해, 외도와 배신의 반복적 삶의 굴레, 용서하기 힘든 내 인생의 파괴

자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은 현재의 내 삶을 파괴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며 “그러나 이제 우리를 파괴하고 짓누르는 삶을 바꾸기 위해 용서를 배워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용서할 때 우리의 삶은 회복과 평강을 얻게 되며 모든 것들은 우리 연약한자들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대구어머니기도회(회장 신동숙 원장), 과테말라어머니기도회(회장 박윤정 선교사), 뉴욕어머니기도회(회장 심화자 목사) 등도 5월 어머니날을 기념하며 예배와 기도회를 갖고 어머니들이 가정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중함을 깨달으며 믿음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욕어머니기도회 30차 5월 기도회에서는 정순원 목사(뉴욕교협회장)가 “섬기는 자”(마 20:20-28)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6월 글로벌뉴욕어머니기도회는 6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뉴욕성결교회(양승호 목사)에서 열린다. (기사제공: 글로벌여목연)

우승 A/G, 2등 RCA, 공동3위 C&MA, PCA 4개 미국교단 한인목회자 연합 친선체육대회



4개 미국교단 한인목회자연합 친선체육대회 참석자들이 경기에 앞서 기념촬영 했다.



NY 교협과 NY 청소년센터 주최 제20회 청소년 농구대회 모습

중등부 우승-웨체스터연합교회, 고등부 우승-아름다운교회 뉴욕청소년센터, 제20회 청소년농구대회 개최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 산하 뉴욕청소년센터(AYC, 대표 황영송 목사)가 주최한 제 20회 청소년 농구대회가 18일 퀸즈칼리지에서 열렸다.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는 “작년까지는 야외 농구장을 빌려 경기를 진행했는데, 대회 때마다 날씨로 인해 경기를 연장해야 했고, 크고 작은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며, “그런 이유로 올해에는 실내 체육관을 사용함으로 많은 학생들이 즐기며, 안전한 농구대회를 치르게 됐

다”고 설명했다. 6-12학년들을 대상으로 오전 9시 개최예배를 드리고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총 13팀이 참가했으며, 260여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열띤 응원과 더불어 나눔의 자리를 가졌다. 경기 실적은 다음과 같다. △중등부 우승: 웨체스터연합교회 △고등부 우승: 아름다운교회 △고등부 준우승: 프라미스교회. (기사제공: 뉴욕청소년센터)



뉴욕감리교회 선교후원을 위한 음악회를 마치고 강원근 목사와 연주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스리랑카와 북미원주민 나바호족 지원 뉴욕감리교회 선교후원을 위한 음악회

뉴욕감리교회(강원근 목사)가 선교후원을 위한 음악회를 5월 18일 오후 7시30분 본 교회당에서 개최했다. 담임 강원근 목사는 “뉴욕감리교회가 지향하는 선교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사명을 기본으로 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몫으로 매년마다 선교 음악회를 실시한다”고 말하고 “특별히 뉴욕감리교회는 각 대륙별로 거점을 정해 선교하는 대륙별 선교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시아는 스리랑카, 유럽은 러시아, 아프리카는 탄자니아를 거점으로 선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목사는 또 “이번 선교후원 음악회는 스리랑카와 북미원주민 나바호족을 지원하기 위한 콘서트”라고 설명하고 “특별히 뉴욕감리교회는 스리랑카 산악지역에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학교 설립 및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고아원도 정기적으로 돕고 있다”고 소개하고 “수도 콜롬보에 문을 닫을 위기에

있는 개신교 계열 유치원을 돕고 있다”며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부탁했다. 이번 선교 음악회는 뉴욕감리교회 유스 오케스트라와 라엘 콰이어 앙상블이 문연연 성도의 지휘로 진행됐다. 6-12학년으로 구성된 유스 오케스트라는 2013년 시작돼 많은 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다. 5차례의 자선음악회를 열어 1만5천달러를 도네이션 받았으며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어 4살 때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해 현재 줄리아드 프리칼리지 재학 중이며 다양한 수상경력이 있는 소년 에리자베스리의 바이올린 연주에는 환호와 격려의 박수가 쏟아졌다. 2017년 결성된 전문 연주자로 구성된 블리스 앙상블의 연주에 이어 비올리스트 스탠리김과 크리스토퍼신 군이 오케스트라와 협주로 연주했으며, 유스 오케스트라와 라엘 콰이어 앙상블의 협연이 이어졌다. (기사제공: 뉴욕감리교회)

만 생각하는 세대 속에 왜 연합을 해야 하는가를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찾았다”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목적이 교단과 교회의 유익보다 앞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체육대회는 변욱기 목사의 개회선언 및 기도에 이어 오태환 목사(PCA)가 경기 안내 및 광고를 한 후 족구(진행 이학용 목사)와 배구(진행 임용수 목사), 윗놀이(진행 조대형 목사) 등이 진행됐다. 족구와 배구는 4개 교단이 총 4개 팀으로 구성하고 경기진행은 리그전으로 하며 15점 1세트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친선대회 종합우승은 A/G가 했으며, 2등은 RCA, 공동 3위는 C&MA와 PCA가 차지했다. 한편 2020년 준비교단은 C&MA가 맡는다. (유원정 기자)



장신대동문 뉴욕-뉴저지 은퇴목사회 조직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초대회장 김평 목사, 부회장 박희소 목사 장신대동문 뉴욕-뉴저지 은퇴목사회 조직총회

뉴욕-뉴저지에 거주하는 장로회신학교 동문들 중 은퇴한 목사들의 모임이 5월 15일 오전 11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임시의장 이성철 목사(56회) 사회로 진행된 총회에서 △초대회장에 김평 목사(49회)가, △부회장에 박희소 목사(59회)가 선출됐다. △서기는 안찬수 목사(74회)를 지명했다. 이날 서부 지역에서 참석한 총무 최승구 목사(60회)는 장신대동문 미주 은퇴목사회 총회에 대해 설명하며 캐나다와 미주에 거주하는 동문들의 소식을 전했다. 미주 동문회는 2018년 5월 남가주장신대 은퇴목사회로 조직됐으나 9월 임시총회에서 미주지역으로 확대했으며 이날 모임을 시작으로 동부에서도 모임을 갖게 된 것이다. 동부 조직 위촉은 김장길 목사(57회), 김정국 목사(60회), 안창의

목사(60회)가 맡았다. 이날까지 등록된 회원은 뉴욕 16명, 뉴저지 12명 등 총 28명이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문근 목사(51회) 인도로 기도 이성의 목사(59회), 설교 김평 목사, 축도 림인환 목사(53회)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가장 선배인 김평 목사는 90세임에도 뜻깊은 모습으로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행하심에 관심이 많았던 니고데모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자 주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대답하셨다”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라며 “주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잘 인도하는 사명을 잘 완수했는지” 묻고 “그 일을 잘 감당하자”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할렘 저소득층/노숙인 대상 예배와 공연 이노비, 브니엘선교회, 뉴저지초대교회 협업

문화복지 비영리단체 이노비(EnoB, 회장 강태욱)가 브니엘선교회(김명희 선교사), 뉴저지초대교회 기관사역부(부장 최국)와 함께 5월 21일 할렘에 위치한 소울세이빙 스테이션을 찾아가 할렘지역 저소득층/노숙자 분들에게 따뜻한 점심과 감동의 음악회를 선사했다. 이번 행사는 세 단체의 협업으로 브니엘 선교회가 매주 화요일마다 열고 있는 봉사모임에 뉴저지초대교회에서 주민들을 위한 점심 식사와 예배를 준비하고 이노비는 무료 공연을 준비해 할렘지역 저소득층/노숙자 분들께 따뜻한 점심과 감동의 음악회를 선사했다. 이노비 이번 공연에는 NYU 뮤지컬작곡 석사를 졸업한 싱어송라이터 유혜림씨가 음악

감독과 싱어로 참여하고, 얼마 전 음반을 출시한 버클리 음대/NYU 재즈학 석사 출신의 정재영씨가 기타를, 버클리 음대를 졸업한 정삼욱씨가 베이스를, 버클리 음대와 NYU를 졸업하고 드문 여성드러머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석다연씨가 드럼으로 참여했다. 한편 이노비는 24일(토) 오후 6시30분 맨하탄 이스트 54가와 렉싱턴 애비뉴의 세인트 피터스 교회에서 무료 음악회를 갖는다. 이 행사는 장애인, 노인, 입원 환자 등 문화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무료 음악회로 행복을 전달하는 문화복지단체 이노비 활동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행사다. (기사제공: 이노비)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 무산

16일 권태산 목사 청빙주도자 법원 금지명령 받아

얼바인침례교회 권태산 담임 목사 취임예배가 무산됐다.

본 교회는 19일 오후 4시30분 가질 예정이었던 권태산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예배가 열리기 3일전 16일 거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서(담담 마사구딩 판사) 판결된 권태산 목사 청빙 주도자들에게 대한 잠정적 제한명령(TRO) 및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에 의해 열리지 못했다.

취임예배가 열리기로 한 19일 오후 4시 교회본당 출입문은 닫혀있었고 몇몇 교인들이 교회 본당입구에 모여 있었다. 또한 닫혀진 본당출입문에는 16일 판결된 판결문에 붙여있었다. 교인들에 의하면 권태산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과 청빙 절차 등 모든 것들이 일부 안수집사들에 의해 벌어진 불법행



얼바인침례교회는 19일 예정되었던 담임목사 취임식이 무산됐다. 사진은 취임예배일 당일 본교회 출입문이 닫혀있는 모습. 사진 오른쪽에는 본교회 출입문에 붙여있는 OC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서 내려진 TRO 및 Preliminary injunction 판결문

위였으며 남침례교 총회에서 이들의 행동이 불법이라고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얼바인침례교회는 4대 담임목사였던 박경호 목사의 사임, 더 나아가 3대 담임이었던 한중수 목사의 사임까지가 모두 이들 안수집사들에 의해 자행된 것이며, 박경호 목사 사임이후 두 차례 청빙이 무산된 것, 그리고 임시담임으로 재직

했던 데이빗권 목사의 사임까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얼바인침례교회는 이번 취임예배를 주도했던 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 등 50여명이 본당에서, 200여명의 반대하는 자들이 친교실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교인들에 의하면 "권태산 목사의 담임목사 청빙결정을 위한 공동의회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50여명에 의해

열렸으며 나머지 200여명이 배제된 채 열렸다"며 "공동의회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권태산 목사의 방송설교가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이름으로 송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해당방송국에 권 목사의 본 교회 담임목사 타이틀을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16일 내려진 판결문을 보내서야 권 목사의 방송설교가 중단될 수 있었고, 현재 얼바인침례교회 홈페이지 역시 권 목사 청빙을 주도한 세력들에 의해 본 교회 담임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아침 권태산 목사가 예배인도를 하기위해 본당에 입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16일 판결된 내용을 근거로 경찰에 의해 퇴장 당했다. 본지는 권태산 목사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20일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얼바인침례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교회의 입장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밝히겠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여성경...’ 전문강사스쿨 및 인도자컨퍼런스

생터성경사역원(대표 이애실 사모/어?성경이 읽히지!., 이하 여성경)에서 LA 2기 전문강사스쿨이 6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월, 토요일 진행된다. 약 18주 과정인 전문강사스쿨은 여성경을 기반으로 성경일독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강사로 훈련받는 과정이다. 전문 강사스쿨에 앞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인도자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전문강사스쿨 입학자격은 성경방에서 구약과 신약을 수료했거나, 성경방을 접할 수 없는 지역에서 이애실 대표의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면 된다.

▲문의: (213)500-2948 김덕수 목사

이대 남가주동문합창단 14회 정기연주회

이화여자대학교 남가주 동문 합창단(단장 안혜숙, 지휘 이종현)은 이화여대 창립 133주년을 기념 제 14회 정기연주회를 25일(토) 오후 7시 지퍼홀에서 갖는다. 이날 연주회는 테너 전승철 씨와 드라마틱 소프라노로 잘 알려진 Lindsay Feldmeth Westra가 특별 출연해 무대를 더욱 화려하게 장식하게 된다.

▲문의: (562)506-7866

청소년 비영리단체 Give2friends 음악밴드 정기연주회

청소년 비영리단체 Give2friends 음악밴드(지휘 장민희) 24일(금) 오후 7시 라카나다장로교회(626 Foothill Blvd)에서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연주회에 기부된 기부금은 작년에 이어 한국의 버려진 아기들을 돌보는 베이비박스, 장애인 선교센터, 일본의 후쿠시마 쓰나미 피해어린이, LA카운티의 아시안 위탁아동들에게 전달된다.

▲문의: g2ffoundation@gmail.com

나성영락교회 뉴빌 세미나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는 '히브루타로 다음 세대를 깨워라'라는 주제로 뉴빌 세미나를 26일(주일) 오후 2시 본 교회 소망관에서 갖는다. 강사는 이성준 히브루타문화협회 이사.

▲문의: (818)523-0510

LA여성선교합창단 정기연주회

발달장애우를 위한 자선기금 마련 제 7회 LA여성선교합창단(단장 최정직, 지휘 최왕성) 정기연주회가 6월 2일(주일) 오후 6시 동양선교교회(김지훈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오렌지 미션 콰이어(지휘 장진영)가 특별출연한다.

▲문의: (213)700-7881, (818)360-9292

남가주새누리교회 무료 건강검진

남가주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에서는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25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본 교회 구예배당 체육관에서 갖는다. Community Medicine in Koreatown & Asian Pacific Health Corps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건강검진은 콜레스테롤, 체지방, 골밀도, 혈압, 유방암, 당뇨, 지과, 눈건강 등을 하게 되며 혈당 및 콜레스테롤 검사받기를 원하는 자는 당일 공복으로 방문해야 한다(통역가능).

▲문의: (213)383-4982

남가주사랑의교회 성교육 세미나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자녀와의 소통을 위한 성교육 세미나를 6월 7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개최한다. 강의 일정은 △청소년 강좌-24일: Substance Abuse(강사 폴정), 31일: Sexuality(강사 조달라스), 6월 7일: Mental Health(강사 폴 알렉산더), 장소 KDC Hyssop Theater, 시간 오후 7시) △중등부 순결서약식(6월 1일, 강사: 피터 고 목사, 안정현 전도사, 장소 GYM, 시간 오후 4시).

▲문의: (714)305-1004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창립37주년 기념예배에서 한기홍 담임목사와 전교인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는 본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부흥회와 이날 예배 설교를 맡은 지용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

장로 4명 등 신임 재직 216명 임직

은혜한인교회 설립 37주년 기념예배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교회설립 37주년 기념예배를 19일 오전 11시에 가졌다.

본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한기홍 목사 인도로 시작된 37주년 기념예배는 지용수 목사(장원양곡교회)가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일'(레19:3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지용수 목사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며 성도들은 목회자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 교회는 큰 비전을 가져야 하며 현재로 만족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 목사는 "사람이 교회이기에 사람이 중하지만 예배당도 소중하다"며 "성정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전정하

듯 주일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행복하게 부유하게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세상 빛이 되는 멋진 하나님의 사마이 되길 바란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더 더욱 크게 쓰임 받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직식과 재직 임명식이 있었는데 4명의 장로, 10명의 안수집사, 그리고 14명의 권사가 취임했으며 183명의 서리집사가 임명 등 총 216명의 임직이 임명됐다.

한편 37주년 기념 축복성회가 16일부터 19일까지 지용수 목사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박준호 기자〉

우리가 몰랐던 스트레스 활용법 강좌

LA온누리교회, 강사 이에스더 박사

LA온누리교회(이정엽 목사)는 우리가 몰랐던 스트레스 활용법 강좌를 18일 오후 3시30분 개최했다.

이동호 집사 사회로 시작된 강좌는 이에스더 박사(매피다인대학교 임상심리센터 임상심리상담사)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이에스더 박사는 "살면서 힘든 일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직장 가족 문화적요인 등으로 스트레스가 생긴다. 작은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그는 "스트레스의 외부여인은 삶의 주요인 변화들, 직장이나 학교, 인간관계의 변화, 경제적 문제, 바쁜 일정, 가정 문제 등이며, 내부요인으로 만

성적 염려, 비관주의, 부정적 자기대화, 비현실적 기대 완벽주의, 경직적 사고, 모 아니면 도식의 태도 등"이라 설명했다.

이 박사는 "스트레스가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삶의 변화도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다"며 "그러나 적절한 스트레스는 긴장하게 하고 몸이 에너지로 생기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트레스 받을 때 유익한 대처법은 운동, 음악 감상, 친구들과 만나기, 샤워 등이 있고 유해한 대처법은 음주, 흡연, 감정누르기, 참는 것, 급 소풍 등이 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 반응습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박준호 기자〉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p> <h1>서부(CA)교회안내</h1>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국어예배: 오후 2:00 영어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 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아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lafcus@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나성영락교회</p> <p>담임목사 : 박은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p>	<p>나성제일교회</p> <p>담임목사 : 김문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나침반교회</p> <p>담임목사 : 민경엽</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독서(금-토): 오전 5:30 토요새벽찬양예배: 오전 6:30 토요일학교: 오전 9:00</p> <p>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p>	<p>남가주든든한교회</p> <p>담임목사 :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주일 영아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예배: 오후 1:20 영어권(장소:KDC, 침례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 전영자 목사</p> <p>"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p> <p>담임목사 :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 김한요</p> <p>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영아예배: 오후 2:00 성인영아예배: 오전 9:15, 11:30 일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etheh@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4 Irvine, CA 92612</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 김상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사택(9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문해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 온</p> <p>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St.,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영아예배: 오후 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음교회</p> <p>담임목사 :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lc.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성, 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장매우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p> <p>Tel: 310-370-5500, www.torrence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하늘소망교회</p> <p>담임목사 : 김택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오후 7:00</p> <p>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지경을 넓히는 총회” 주제

기하성 교단 통합 후 첫 정기총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가 교단 통합 이후 첫 정기총회를 열고 오순절 교단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했다.

기하성은 20일과 21일, 경기도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802명의 총회대의원(총대)이 참석한 가운데 '지경을 넓히는 총회'를 주제로 제6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기하성은 지난해 11월 구 기하성 의의도측과 서대문측이 통합했다. 임원은 당시 통합총회에서 선출했다.

개회예배에서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성령의 역사'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한 교단으로서 하나가 되자'고 설교했다. 이 대표총회장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됨의 역사요, 회개케 하고 예수를 높이고 그를 닮아가는 역사"라며 "어떤 경우에도 (교단) 분열과 다툼은 안 된다. 이는 마귀의 역사다. 초심으로 돌아가 성령운동을 바탕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자"고 말했다.

이 대표총회장의 메시지는 교단 통합 이후 임원이나 실행위원회 등 모임 때마다 강조해

왔던 내용이다. 오순절 교단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회개, 성령충만, 하나 됨, 고소·고발 없는 거룩한 총회 등이 키워드였다.

개회예배 이후 안전 토의가 시작됐다. 주요 안건은 지난해 통합 총회에서 결의해 보완한 헌법 인준 건이었다. 총대들은 이를 인준했다. 다만 지역총회법 인준에 대해서는 2년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지역총회법은 미국 하나님의성회 법을 국내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중앙총회가 주요 사항만 결의하고 나머지 행정은 지역총회에 권한을 위임한다. 인준 헌법에는 담임목사 정년 75세(구 서대문측 4년간 미적용), 교단 재판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총대들은 또 연금재단 해산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연금공제회 이사회에 이를 권고기로 했다.

총대들은 긴급 상정된 '동성결혼 합법화 절대 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 안건을 만장일치

로 결의했다. 이 대표총회장은

“얼어붙은 한반도에 화해의 역사를”

원로목사 500여명 임진각서 평화통일 염원 기도

“주님, 얼어붙은 한반도에 화해의 역사를 허락주소서.”

15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통성기도가 울려 퍼졌다. 행사이름은 '한국교회 원로목회자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기도회', 부제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향하여'였다.

원로목사 500여명은 분단의 현장을 직접 바라보면서 두 손을 모았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는 기도를 드렸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최근 우리 군의 경계가 강화됐다는 말에 이들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다.

특별기도회는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한국원로목자교회, 한국원로목회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가 주관했다.

재단 명예이사장 립인식 목사는 인사말에서 “오늘 임진각 특별기도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모임을 될 것이다. 평화통일 기도회를 하다 보면 남과 북은 점점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 고문 김상복 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는 설교에서 “기도회를 통해 올바른 평화관과

“최근 대만의 230만 기독교인이 750만명에게 동성결혼 반대 서명을 받았다”며 “기하성 총회부터 동성결혼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역사관을 정립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가 퍼지길 기대한다”면서 한국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윤기 남북조찬기도회 대표회장은 축사에서 “교회가 먼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불태워야 한다. 역사의 산증인인 원로목회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통일로 가는 초석이요 지름길임을 믿는다”고 했다.

행사를 후원한 대구 방주사랑교회 김신자 목사는 대회사로 통해 “이제 우리에게 민족의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평화통일을 바로 세워 주님이 보호하고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각오를 갖게 된다”고 했다. 이주태 재단 대표회장은 “이 땅의 안보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북한 동포와 민족복음화, 교회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가 있따랐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열창했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기념촬영도 했다. 돌아오는 내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소리가 컸기에 맴돌았다.

‘총회 회무 적극 참여’ ‘금품 살포 적발 시 사퇴’

기성 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들, 공명선거 다짐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윤성원 목사) 제113년차 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 한기채(중앙성결교회·기호 1번) 지형은(성락성결교회·기호 2번) 목사가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금품선거’ 논란이 자주 불거진 한국교회의 선거운동 관행을 개선하고 공명·정직선거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오는 28-30일 열리는 기성총회 목회부총회장 후보인 두목사는 지난 18일자 교단지 한국성결신문에 ‘총회 시작부터 회무 적극 참여’ ‘금품 살포 금지’ ‘금품 살포 적발 시 사퇴’ 등 4가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서 두 후보는 선거운동 과열 방지를 위해 총회의 시적인 개회예배부터 총회 장소에서의 모든 선거 운동을 멈추고 회무에 집중할 것을 천명했다. 또 선거 전날과 당일 금품 살포를 절대 하지 않을 것과 이를 감시하기 위해 총회장 곳곳에 인력을 배치할 것을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요청했다. 후보자가 인지한 금품 살포가 발각될 경우 해당출마자는 총회에서 즉각 해명

한 뒤 선관위의 확인을 거쳐 사퇴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합의 내용 이행 여부다. 전문가들은 공명선거를 위한 합의문 발표를 높게 평가하는 동시에 합의 내용 이행 추구를 위한 상호 감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인 백종국 경시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공명선거를 위한 노력이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교단 선관위 등이 일명 ‘공명선거 감시단’을 운영해 금품·향음으로 선거인단을 매수하는 후보가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품선거 논란 없는 교계 선거문화 개선을 위해선 후보뿐 아니라 유권자인 교단 총대 역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종교사회학자인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설혹 후보가 봉투를 뿌리더라도 총대가 이를 거부하는 개인적 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나 하나 바뀐다고 선거 문화가 바뀌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개인의 뜻이 모여야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수용자 보듬는 아름다운 기독교인들…

한국교정선교회, 교정선교사도상 수상자 선정

(새한국교정선교회(이사장 송주섭 장로·회장 박도석 목사)는 '제23회 교정선교 사도상' 수상자로 한동훈(52·화성직업훈련교도소) 한기원(52·김천소년교도소) 조두환(59·정읍교도소)교감과 김현범(45·서울남부교도소) 양영일(51·공주교도소) 채성용(51·군산교도소) 교위 등 6명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동훈 교감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선교회 전 회장으로 아버지학교를 개설해 수용자

교화에 앞장섰다. 한기원 교감은 불우수용자 지원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앞장섰다. 조 교감은 불우 이웃을 돕고 수용자 복음 전파에 노력했다.

김 교위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직원과 수용자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했다. 양 교위는 수용질서 확립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채 교위는 불우 수용자 가족돕기 콘서트를 열어 수용자 복지향상에 힘썼다.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고르반 (Κορβάν)

'거부, 동의하지 않음'의 뜻을 가진 '반대(反對)'라는 단어는 여러모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오직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심할 수도 있다. 윌리엄 먼로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투표를 한다는 말로 이를 증명했다.

하지만 소신 있는 반대, 모두를 위한 반대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미의 '반대'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변모한다. 나를 위한 부정적인 반대나 아니라 모두를 위한 소신 있는 반대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좋은 만남이 있어야 한다. 첫째,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 둘째,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 셋째,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 둘째와 셋째 만남은 인위적으로 가려가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만남은 이 세상 그 어떤 자라도 스스로 원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천륜(天倫)이라고 한다. 이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불가분리(不可分離)라는 것을 가리킨다.

희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Socrates, BC 469-399)는 "부도남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곁에 좋은 친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 1769-1821)은 "자식들의 운명은 언제나 그의 어머니가 만든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어린 자녀에게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이다. 탈무드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자녀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두셨다"라는 격언이 있다.

사도 바울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엢6:1-3)고 말씀하셨다. 이는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을 인용한 말씀이다.

유대인 전통에 "고르반(Korban)"이란 게 있다. 이 말은 "제물", "헌물"이란 뜻으로,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을 가리키는 신앙적 의미로(레2:1,4,12) 사용했으며, 사전에서는 "기원(祈願)한 것이 이루어진 데 대한 사례로 신에게 바치는 물건"이라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통이 악한 사람들에게 의해 오용되었다는 데 있다.

-당시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봉양 의무를 하나님께 대신했다는 변명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즉 장로들의 유전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 의무를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 할 의무가 없어진다고 가르쳤다. 때문에 그들은 부모 공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로 장로들의 유전(遺傳)을 이용했다. 또 "고르반"은 일종의 맹세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가진 물건을 하나님께 드림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부모를 위하한 모든 타인으로부터 제한시킬 수가 있었다. 이 "고르반" 맹세는 비록 모세의 또 다른 계명(부모 공경 등)을 파기하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시행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이 같은 "맹세"는 실제로 성전에 물건을 바쳐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맹세한 자는 "고르반"된 물건의 일부만 성전에 헌납하고(아예 헌납 치 않을 수도 있음)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해도 무방했던 것이다. 결국 장로들의 유전은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모에게 나누어주지 않으려는 불효자들의 기만적인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구실을 한 것이다. 한편 후대 랍비들은 이러한 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여 "미쉬나"(Mishnah)에 고르반을 빌미로 부모 공양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그 조항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는 부모 공경보다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더 중하게 여겨 고르반의 폐단을 계속 고집하였다고 한다(호크마 주석에서).

호크마 주석은 당시 고르반이란 말이 순전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사용된 것만은 아니었음을 밝혀준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이 전통을 악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전통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막7:11-13)고 지적하셨다. 여기에서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막7:11)이란 말을 직역하면 "나로 인해 당신이 유익을 얻게 될 그 무엇"이란 말로서, 이는 자식이 부모에게 봉양하고자 할 때 그것이 그 부모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선물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말은 부모를 농락하고 속이는 파렴치한 변명이라는 것을 다음 문장인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에서 알 수 있다.

인간의 전통과 관습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게 되는 폐단(弊端)은 오늘날은 더욱 팽배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고르반의 오용, 즉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했으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서 해방되었다는 잘못된 전통을 단호히 꾸짖으신 것처럼 이 고르반의 유전을 강하게 반대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셨다. 부모공경은 또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 편에 선 거룩한 성도는 이 고르반을 반대하고 부모를 잘 공경해야만 한다.

hanmac@cmi153.org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부적절”

국민 64%...작년 7월 조사보다 부정적 여론 줄어

국민 대다수는 동성애 등 성소수자들의 축제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공정위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여론조사공정(주)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서울 퀴어 문화축제'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여론조사공정(주)의 '퀴어축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캡처.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64%는 퀴어 축제에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봤다. 적절하다고 본 의견은 24.8%였다. 또 서울시 공무원들이 "2015년부터 4년 간 서울광장에서 치러진 이 행사가 광장의 사용목적과 규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앞으로 사용신고 시 허가하지 말라"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와 서울시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60.5%가 적절한 요청이라며 찬성했다. 서울시 공무원 17명은 지난 7일 퀴어 축제의 음란성 등을 지적하며 개최 반대 서명을 낸 바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퀴어 축

제 중 이뤄지는 참가자들의 과도한 노출과 성인용품 전시에 대해서도 응답자 80.5%가 "시민과 어린이들을 위한 공공장소이므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런 점 때문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73.6%를 차지했다. 자기표현의 일종이므로 괜찮다고 본 의견은 13.3%에 불과했다.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해서도 67%가 반대하는 등 다수 국민들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7월 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와는 달리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의견은 지난해 보다 5.1%p 늘어 25.9%를 기록했고, 퀴어 축제에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7%p 오른 19.5%에 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중 '동성애'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응답자 30.7%는 당연한 권고라고 봤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유무선 ARS전화조사를 통해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 경남도의회서 '부결'

본회의 상정에 제동걸려...의원 직권상정 가능해 경계

경남학생인권조례가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본회의 상정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제363회 임시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심사한 뒤 표결에 부쳐 반대 6표, 찬성 3표로 부결시켰다.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상위에 위 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조례가 제정될 경우 교권침해의 가능성이 높고 학생들이 성적(性的)으로 문란해질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인 표병호(양산) 의원과 김경주(김해) 송순호(창원) 의원이 던졌다.

원대연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

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행위 자유 등이 들어있는, 막 나가는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학생 의무는 없고 성적 지향,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잔뜩 집어넣은 조례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경남 도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조례 상정 및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누구인지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조례상정 시도는 꿈에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 하거나 제적의원 58명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24일 임시의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선교의 창 (122)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비상하고 있는 베트남(1)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베트남이 급부상하고 있다. 통일 베트남은 인구 1억을 내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균연령 28세로서 젊고 역동적이다. 단적인 예가 축구경기에서 나타났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팀은 2018년 아시안 게임 축구 4강, 2018년 AFC U-23 축구 선수권 대회 준우승, 2018년 AFF 스즈키컵 우승이었다. 이 성적은 전무후무한 결과였다. 경기가 있었던 날은 전 베트남인이 거리응원과 TV 화면을 통해 하나가 되었다. 이후 젊은이들은 밤새도록 경적을 울리며 오토바이 행진을 하였다. 이는 마치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본 분위기가 되었다.

순한 경제나 문화 교류 차원을 넘어서 선교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1. 일반적 현황

베트남(Vietnam)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정회원국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부에 위치한 사회주의 국

인구는 9,616만163명으로 1억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세계의 13번째 인구대국에 해당된다. 인구의 34.9%가 도시에 살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공인한 민족 수는 54개이다. 전체 인구의 85.7% 정도가 비엠티(Người Việt, 越人)이라 불리는 킨족(Người Kinh, 京族)이다. 이로서 킨족이 사실상 베트남인인 셈이다. 나머지 53개 민족은 소수민족이고 그중 가장 많은 타이족은 1.9%밖에 안 된다.

베트남은 크게 전국을 8개 지방으로 나눈다. 수도는 하노이이며 최대 도시는 호찌민시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은 시장경제체제를 가진 명목상 공산주의 국가다. 베트남의 공식 언어는 베트남어이며 로마자로 적는다. 베트남어는 단절어(單綴語)로 성조가 6성이 있다.

2. 전쟁의 역사

1882년 프랑스의 보호국이 되면서 민족의 독립을 표방하

(Domino theory)을 내세워 베트남에 개입하였다. 즉, 통킹만 사건(Gulf of Tonkin Incident)을 빌미로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10년의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한 것보다 훨씬 많은 폭탄을 북베트남 지역에 투하하였다. 이처럼 막강한 화력과 인력 외 한국 등 9개국의 참전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베트남의 끈질긴 저항 속에서 전 세계와 미국 내의 반전 여론이 밀리게 되었다. 결국 1973년 파리 협정을 맺고 철군하였다.

1975년 북베트남은 사이공을 점령함으로써 베트남은 공산주의 체제인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베트남 단일 국민회의는 1976년 7월 역사적인 통일 베트남 수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으로 하였다.

3. 전쟁의 상흔

위키백과 자료에 의하면 이 전쟁으로 미군은 무려 58,315

를 파병하였고 1966년에는 백마부대의 파견했다. 총 인원은 325,517명이다. 이 중 사망자 5,099명, 사상자 11,232명, 실종자 4명이며 이밖에 159,132명이 고엽제 등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아왔다.

이에 비해 베트남의 피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베트남 노동부와 전상자복지부는 보고서에서 제1차, 2차의 20여 년에 걸친 베트남전쟁으로 베트남군인 및 민간인 총 3백만 명이 숨졌으며 약 4백만 명이 아직도 부상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다.

4. 한국과의 관계

역사와 문화적인 면에서 베트남은 한국과 매우 비슷하다. 중국인들은 우리를 동족 오랑캐(東夷, 동이)라고 불렀고, 베트남사람을 남쪽 오랑캐(南蠻, 남만)이라고 불렀다. 말하자면 한국과 베트남은 중국에서 같은 입장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초창기의 불교, 유교, 기독교도 중국을 통해서 직, 간

편으로 1992년 4월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 때 양국 연락대표부 설치를 합의하였고, 12월에는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양국의 불행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2001년에는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였다. 이제는 선린 우방으로서 한국 정부도 신 남방정책의 일환으로 베트남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

맺음 말

베트남이 용처럼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비상하고 있다. 이 나라는 불란서, 미국, 중국이라는 대국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둔 나라라고 자부하고 있다. 이제 통일베트남은 전쟁의 아픔과 이념의 뒷에서 벗어나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젊은이들의 오토바이 행진을 통해 저들의 기상을 본다. 하지만 이 나라는 한국을 발전 모델로 삼고 도움을 손길로 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손을 굳게 잡아 주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기대한 바이다.

동북아의 귀퉁이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위로는 북한과 4대 열강에 포위된 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 때에 베트남과 함께 미래를 도모한다면 새로운 출로를 활짝 열 수 있다. 두 나라는 정치, 문화, 역사적인 면에서 동질성이 크며 상호 보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때에 우리는 서로 간에 표면적인 부국강병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 영적 해안을 열어 베트남 영혼들을 위로하며 아픈 상처를 싸매주어야 한다. 장차 저들이 주의 일꾼으로 우뚝 솟아 인도차이나 반도를 넘어 서서 세계선교를 위한 정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jrson007@hanmail.net

베트남은 1억을 내다보는 세계 13번째의 인구대국이다. 베트남은 1,2차 전쟁으로 인하여 약 7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국교회는 그 상흔이 치유되도록 기도하며 복음으로 빛을 갹아야 한다.

가이다. 남북으로 길게 잡아 늘인 S자 모양으로 생겼으며 그 길이가 1,650 km나 된다. 국토가 길게 뻗어 있어서 기후가 다양하다. 북부는 아열대 기후로 사계절이 있다. 남부는 열대기후로 일년내내 덥고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며 스푼이 있다. 면적은 약 33만 341km²이며 3/4이 산지와 구릉지이다.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CIA the Worldfactbook에 따르면 2017년 베트남의

는 반(反)프랑스운동이 맹렬히 추진되었다. 1946-1954년까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일어났다. 1954년 3월 13일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베트남군이 대승을 거두고 프랑스군이 철수를 하면서 베트남은 독립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서구 열강은 제네바 협정을 통해 베트남을 다시 북위 17도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단시켰다. 베트남은 1964년부터 1975년까지 미국에 맞서서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치러야 했다. 미국은 도미노 이론

이 명칭이 전사 및 실종했다. 부상 약화로 수년 후 사망하여 집계 안 됐거나 심한 부상을 입은 군인까지 합치면 참전병 300만여 명의 1/15인 20만 명에 달한다. 게다가 이 전쟁으로 인해 전사자 및 유족 처리, 미국 사회에 다수의 상이병사, 고엽제 후유증, 베트남에서 돌아온 군인들의 사회 부적응 등으로 인적 손실이 만지만이 아니었다.

한국군은 어떠한가? 1964년에 의무중대 파견을 시작으로, 1965년부터는 맹호, 청룡부대

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현대사에서는 양국이 모두 서구 열강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그 여파로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이념논쟁을 통해 희생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그 와중에 제 2차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였고 한국이 참전함으로써 불행한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80년대 중반까지 원수지간이었다. 다행히도 베트남이 개방정책을

The Corner 아이티 방문

어젯밤에 마이애미에 왔습니다. LA에서 오는 팀과 같은 시간에 아이티에 들어가려고 하룻밤을 마이애미 공항에서 보냈습니다. LA에서 온 팀이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어 마이애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탄 아이티행 비행기는 아침 6시 정시에 출발해서 예정보다 조금 일찍 아이티에 도착했습니다.

탁 선교사님께서 공항까지 마중을 나오셔서 트럭에 짐을 싣고 팀은 버스에 탑승합니다. 시내로 선교센터에 짐을 풀고 정리를 하고 아침 겸 점심식사를 하고 차에 식량을 실었습니다. 오늘은 CFC, 러브, 살롬, 하우스 오브 흡에 갑니다.

고아원마다 아이들은 밝은 모습으로 잘 있습니다. 하지만



CFC 아이들은 12시가 훨씬 넘었는데 아직 밥을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아서 탁 선교사님께서 준비해주신 과자를 먹게 하고 물을 나눠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과자를 먹고 우리는 새 옷과 새 신발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러브 고아원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마침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온 선교팀이 아이들 건

강검진을 하고 있어서 서로 격려하고 했습니다.

잔 목사의 살롬 고아원은 방과 후의 한가함 속에 원장도, 원장 부인도, 아이들도 펄쩍펄쩍 뛰며 우리 일행을 반겨주었습니다. 아이 중에 머리 피부가 심하게 벗겨지고 곱은 아이가 원장이 데리고 와서 차 사 모가 머리를 닦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Esparanta는 여섯 살인데 네 살쯤으로 보였습니

다.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병원비를 건넸더니 잔 목사가 저를 한참 끌어안고 "메시"를 연 발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은 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아프고 배고프다고 칭얼대지도 못하고 아프다고 울지 못하면서도 가서 만나면 반갑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아이들은 잘 있습니다.

많이 막히는 길을 천천히 가서 위슬린이 있는 하우스 오브 흡에 갑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좋고, 위슬린은 잘 크고 있습니다. 위슬린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아이는 좋아하면서도 영어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에 입이 살짝 나왔는데 그래도 "오케이" 했습니다.

LA 팀은 정말 부러운 팀입니다. 영어권의 젊은 청년들이 직장에 휴가를 내고 한걸음에 아이티 고아들을 만나려고 왔

습니다. 쌀도 잘 나르고,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하고 조금씩 울먹이기도 하면서 아이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차례 울었습니다. 아침에 도착해서 LA팀에게 우리 사역을 소개하다 울었고 CFC에 가서 허겁지겁 과자를 먹고 물을 마시는 아이들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에스퍼란타의 머리를 닦아주고 알코올로 소독해주고 약을 발라주는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말에 한참은 낫 나간 사람처럼 신음했습니다.

하우스 오브 흡에서 매진을 소개하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지 이야기하다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티 고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나 피터 정 목사를 통해 LA 팀이

또 아이티 고아들을 기억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내일은 브니엘 고아원에 갑니다. 브니엘에 다섯 대의 노트북 컴퓨터와 프린터를 설치해주고 교육도 하고, 원장과 아이들과 오래오래 이야기도 하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팀이 아이티에 마음을 두고 오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조항석 목사 드림
chohenry02@gmail.com

<h2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2> <h1 style="text-align: center;">기타지역 교회</h1>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선중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디너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주일학교: 오후 8:00 (주일)오전 11:00, (금)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살롬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토요일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 위, 유: 오전 10:45 중, 고, 구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토요일: 오전 6:00(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시애틀,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얼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영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얼린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예)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시애틀(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월-금)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 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org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보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cp.org	

선교 펴기

에스와티니

2019년도 두 번째 소식을 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2).

어느 시인은 4월을 ‘잔인한 달’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부활절이 들어 있는 이 4월은 죄로 인해 죽었지만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생명의 달의 진정한 의미가 풍성한 시기입니다.

겨우내 메말랐던 산하가 푸르름과 꽃으로 화답하는 이 시기에 진정한 부활의 삶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들 이기를 기대합니다.

이곳 에스와티니(스와지랜드)도 새로운 내각과 국회가 구성되어 일한지 6개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상황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쁜소식 선교회’(박옥수 목사)는 여전히 이곳 국왕을 비롯한 고위층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이제는 교사들과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그들의 교리를 전파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서 현지의 한국선교사들에게 큰 도전과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 조국 대한민국이 처한 나라 안팎의 여러 문제들도 우리들 모두에게 기도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기에,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어 이곳 선교지와 조국에 진정한 주님의 말씀만이 흥왕하여,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들이 바뀌고 나라의 제반 문제들이 해결돼 나가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기도해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부터 기독교대학교의 새로운 팀이 적극적으로 다시 시작한 의대설립문제는 이곳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한 제반 서류들을 제출한 상태이지만 아직 확정적인 상태가 아니라서 금년 내에 개교하고 학생을 선발하고 시작할 수 있겠다던 기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과 뜻에 부합한 일하기를 기도

하면서 기다립니다. 5년 전과 달리 우리는 잘 돕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라 한결 마음이 가벼운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매 순간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나날이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에스와티니의 부족한 의료 현실을 돕기 위한 전문의 초청사역으로는 지난 3월 3일에 금년도 첫 번째 비뇨기과 수술 팀으로 한림의대 추민수교수님(동탄병원)과 심명선교수님(안양병원)이 방문하셔서 이곳 망가야네 정부병원에서 선전성기형 교정수술과 전립선 수술들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혈관외과 수술팀으로 서울의대 임정교수님(분당병원)과 박찬혁간호사가 방문하여 역시 이곳 혈액투석센터가 개설되어 있는 병원들에서 수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곳 공공병원들의 수술장사정들로 인해서, 계획된 일정들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이런 사역들은 이제는 몇 년이 되었기에 다 잘될 것이라고 믿었던 우리들의 자만심을 내려놓고 선교지에서는 더욱 겸손하게 그리고 매번 처음처럼 준비해야 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더욱 잘 준비하며 현지 병원들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3월 26일에는 원주연세의대 김희만교수님(소화기내과)이 방문하셔서 3주간 섭거 주셨습니다. 우리 스와코센터에서 파랄라제단이나 현지 병원들에서 의뢰된 환자들에 대한 자문과 내시경을 담당해 주셨고, 또 정부병원에서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시범하며 교육하려던 일정은 정부병원의 장비가 시범직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못했지만 다른 한 병원에서는 함께 참관하며 논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곳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알아보고, 가능하면 앞으로 도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해주셔서 정말 고

맙습니다. 계속해서 고신대와 부경대 연합 검진사역팀, 심초음파학회와의 협력문제, 소아외과분야 및 성형외과분야 수술 문제, 피부과분야나 통증치료분야 등 각 계획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창기부터 우리들과 함께 한 한국의 NGO인 The Right Hands 와의 협력사역인 시골 지역 초등학교 여학생들에 대한 위생팩 지원사업과 빈곤가정 아동급식 지원사업도 금년도 부분 1차 사역은 잘 마쳤고 2차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우간다 시절부터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후원해 주신 여러 후원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으로 부족하지만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제목

1. 필요한 장, 단기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2. 의대문제에 대한 주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잘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도록
3. 기쁜소식선교회(IYF)를 비롯한 현지의 영적문제들을 바로 깨닫고 잘 이겨 나가도록
4. 이곳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잘 감당해 나가시도록

기쁜 마음으로 다음 소식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내내 평강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에스와티니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김선영 드림 sykim@cnu.ac.kr

채플린 임상목회 (28)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채플린)

가정폭력과 마약과 정신질환

(주)요즘 미국 사회에서 한 개인이나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요인 중에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이 바로 가정 폭력과 마약이라는 조사 결과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필자는 얼마 전에 바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던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철저히 붕괴되었는지 목격하는 경험에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 비밀 보호 및 유지를 위해 나이와 이름, 가족 관계 등은 임의로 변경하였음을 밝힙니다.

비가 엄청나게 퍼붓는 날이었는데, 저녁 다 늦은 시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폭 방문해서 만나보면 좋을 환자가 있다고 담당 의사가 직접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날 저녁은 제가 On Call(당직)이라서 폭우 속을 뚫고 차를 몰아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담당 간호사로부터 환자의 현재 상태에 관해 간단히 들은 바로는, 현재 30대 후반인 수잔이란 여자 환자는 심각한 약물 중독으로 환각과 환청 등의 증세를 보이며 응급실로 실려 왔고, 많이 안정되었으나 가끔씩 불안증(Anxiety)과 우울증(Depression) 증세를 보일 때마다 몇 차례 위험한 상황을 겪었다고 하였습니다.

환자의 병실을 노크하고 들어서니 환자는 창문을 향해 앉아서 비가 내리는 길거리를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의자를 갖다가 환자 옆에 앉은 후 환자의 기분을 물어보았습니다. “Hopeless!” 한, 소망이 없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하니

까, 한참을 침묵하고 있다가 비로소 자신의 지나간 과거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비교적 부유했던 가정에서 태어나 캐톨릭 신자였던 어머니의 권유로 캐톨릭 계열의 사립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에 취업해서 부모로부터 독립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직장 관계로 잦은 파티에 참석하다가 첫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 잠깐이나마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음주가 잦았던 남편은 술이 많이 취한 날이면 어김없이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3년 만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려니 힘이 들어서 다시 2년 만에 재혼을 했는데 남편이 알고 보니 마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차츰 남편과 함께 마약에 빠져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마약 복용과 소지 혐의로 구속까지 되고 첫 남편은 아들의 양육권을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초범이라 6개월 후 석방이 되었지만 남편은 그 후에도 반복되는 마약 복용으로 인해 현재 감옥에 장기 복역을 하고 있고 자신은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시간제 일을 했지만 아들을 데려올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서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들이 현재 그 아버지에게 가정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신이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양부모 가정이나 돌보아 줄 수 있는 위탁 기관에 보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마저 병들어서 요양병원에 있어서 그야

말로 아들을 돌봐줄 수 있는 친척도 한 사람 없는 처지에 자신의 건강마저 상해서 이제는 퇴원을 해도 마땅할 곳도 없고, 마약으로 다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싸여 있었습니다. 두 눈에선 하염없이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시간이 넘게 필자는 환자 옆에서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공감해주면서 경청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눈물 때문에 티슈 화장지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과 감정을 그렇게 오랫동안 밝힌 것이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환자가 말을 다 끝내고도 복받쳐 오른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스스로 다독거리기 위해 한참 동안 다시 기다려 주었습니다. 환자는 한결 밝은 표정으로 마지막 눈물을 손으로 훔치면서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환자를 위해 성경을 침대 옆에 놓아두고 나와서, 그녀가 퇴원하면 머물면서 계속해서 치료받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을 소셜 워커와 함께 찾다가 인근에 있는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여성 마약중독자 치료와 갱생을 돕는 무료 쉼터와 연결이 되었고 입소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떤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환자의 간절한 기도처럼 이제는 가정폭력과 마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데려와서 함께 살고 싶은 꿈이 하루 속히 성취되었으면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기대되어집니다.

tdspark@gmail.com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20년 해외 한인교회 주소록 발간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 2020년 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9년 8월 31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광고 접수마감 2019년 7월 31일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유 료 광 고 안 내	тол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0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800.00	
	(칼라) 전면 1/2	15.5cm × 5.8cm	\$600.00	
		15.5cm × 5.8cm	\$350.00	
	전면1/4	7.7cm × 11.7cm		
		15.5 × 2.8cm	\$250.00	
전면1/8	7.7cm × 5.8cm			
	Listing size	\$100.00		

무 료 리 스 팅 신 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nychpress@gmail.com, lachpress@gmail.com로 보내주시요.

영어로 보는 성경 (19)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Esther 4:12-14

12) When Esther's words were reported to Mordecai, 13) he sent back this answer: "Do not think that because you are in the king's house you alone of all the Jews will escape. 14) For if you remain silent at this time, relief and deliverance for the Jews will arise from another place, but you and your father's family will perish, And who knows but that you have come to your royal position for such a time as this?" (NIV 1984)

WORD & IDIOM

* sent back: 되돌려 보내다 * escape: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다 * remain: 계속 ~ 하다(이다)
* relief: 안심, 위안, 놓임 * deliverance: 구출, 구조, 구원 * perish: 죽다, 사라지다 such a time as this: 이와 같은 때에

GRAMMAR

12) When Esther's words were reported to Mordecai, 때 에스더의 말(이) 전해졌다 모르드개(에게) ⇒ 에스더의 말이 모르드개에게 전해 졌을 때,

13) he sent back this answer: "Do not think that 그가 이런 답을 되돌려 보냈다 (that 이하를) 생각지 말라 because you are in the king's house you alone of all the Jews will escape. 당신이 왕의 집에 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 가운데 당신 홀로 (고통을) 피할 것이다 ⇒ 그가 이런 답을 되돌려 보냈다: 당신이 왕의 집에 거한다는 이유로 모든 유대인 가운데서 홀로 고통을 피할 것(을)으로 생각지 말라.

■ "Don't think that ~에서 접속사 that 이하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이 문장은 주어를 생략한 3형식(S+V+O) 구조의 명령문으로 접속사 that이 이끄는 절이 목적어 기능을 갖는다,

14) For if you remain silent at this time,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계속 침묵한다면 이러한 때에 relief and deliverance for the Jews will arise from another place. 위안(놓임)과 구출(구원) 유대백성을 위한 일어날 것이다 다른 곳으로부터 but you and your father's family will perish.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안은 멸망할 것이다. ⇒ 왜냐하면 이러한 때에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침묵을 한다면, 다른 곳으로 인하여 유대백성의 놓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안은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And who knows but that you have come to your royal position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왕실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인지)지 누가 알겠나? for such a time as this? 이와 같은 때를 위하여 ⇒ 그리고 이와 같은 때를 위하여 당신이 왕실의 귀한자리(왕후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인지 누가 알겠나?

■ you remain silent : 2형식 문장이다. remain 대신 be동사 are를 넣어 해석을 하면 '당신은 침묵(잠)하다'인데, 이런 상태가 지속됨을 표현하고자 할 때 be동사 대신 remain이나 keep을 쓰면 된다. Ex) I kept silent because I didn't know what to say. = 나는 무엇을 말할지 몰랐기 때문에 계속 침묵했다.

■ who knows but that ~ : '~ 일지(할지) 누가 알겠는가?'라는 뜻을 나타내는 고정된 표현으로 '그 누구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STUDY & THOUGHT

■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민족을 구원에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왕후의 지위를 가진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수단이 될 것을 희망했다. 하나님은 홀로 초자연적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지만, 필요에 따라 사람을 사용해서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교훈을 얻는다. 소명에 따른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4:16).

■ The reason God gave you wealth, social position and spiritual gifts, is to use you to help others.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하나님의 보증(히6:14-17)찬9장

하나님은 완전한 구속을 보증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확증이 구속받은 자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고 모든 은혜를 효과적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보증에 관해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그 목적, 자신이 신실하심을 충분히 나타내심이 목적이었습니다(17).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심으로 격려를 받아 더욱 신실하게 따르게 하셨습니다. 둘째, 그 방법, 자신의 맹세를 통해(17) 그 신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조건과 결과를 가진 약속은 우리의 신실한 노력의 그릇 속에 신실한 결과를 담게 하심으로 약속하신 그분만이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셋째, 그 요구, 그 보증은 약속받은 자들에게 오래 참음의 믿음을 요구합니다(16). 그 귀한 약속이 현실화되기까지 우리는 겸손한 인내의 수고가 따라야합니다.

화 피난처를 찾는 사람(히6:18-20)찬44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본문은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그는 2가지로 변치 않으십니다(18). 구하는 자에게 상주심과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얻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그 분은 진실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날에 그를 찾으면 놀라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늘의 소망의 대상이십니다(19). 우리의 영혼이 참된 소망을 가

집은 그가 이루신 구속에 그 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뜻을 내린 배처럼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음은 우리가 피난처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합니다(20). 위로의 서신인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나 그와의 교제를 통해 영생을 누리게 하는 구속의 길을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수 멜기세덱의 실체(히7:1-3)찬44장

멜기세덱은 실제한 인물이지만 상징주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완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는 실체이신가요? 첫째, 그는 살렘 왕이십니다(2). 살렘이란 평강이란 뜻인데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원천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2). 의와 평강이 지배하는 나라는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적 신분은

멜기세덱의 직분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자가 이 땅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세상에 전하는 자로 넉넉히 살게 하십니다. 셋째,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린 행위는 그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음을 반영함으로써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실체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목 멜기세덱의 실체(히7:4-9)찬 45장

성령이 멜기세덱의 신분을 높이심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효력을 증거함에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높은 신분입니까? 첫째, 아브라함이 그에게 복을 받았다는 점이 그러합니다(1-4). 복의 근원으로 부름 받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 받음 받은 것은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쳤다는 점이 그러합니다(5-6). 또한 성령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십일조를 받

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신한 모형을 보여줍니다. 셋째, 아브라함이 모든 제사장의 대표로서 멜기세덱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점이 그러합니다(7-8). 그리스도는 모든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신 온전한 대제사장이므로 자기 백성의 죄를 완전히 제하시고 그 효력을 영원히 나타내십니다. 거기에 근거를 둔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께 설 수 있습니다.

금 멜기세덱의 실체(히6:10-12)찬46장

그리스도가 별다른 대제사장으로 오심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완전한 제사직분을 이루었습니다(10-11). 레위직분의 불완전한 함은 이 영원한 구속을 이룰 수 없었기에 반복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림자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돌보이게 한 것입니다. 둘째,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12). 율법을 주신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인 의인신을 생활에 정착시키심인데(마23:23) 모형과 상징주의만으로는 불

가능한 것을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두 완성시켰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율법의 목적을 이룹니다. 셋째, 아브라함, 아론의 계열을 통해 보여주던 부족한 제사직분은 멜기세덱, 유대계열의 특이한 제사장, 예수그리스도를 보이심으로 그 확고한 영원한 제사직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토 영원한 제사장(히10:16-22)찬25장

사도는 그 영원한 제사장의 신분과 공로를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오직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첫째, 불멸하는 생명의 능력을 따른 분이십니다(16). 그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 자체가십니다(요14:6). 둘째, 하나님께 넉넉히 나갈 수 있게 하신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19). 완전한 구속은 오직 그를 통해서만 이뤄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사역을 의존함으

로 그 복을 누립니다. 이 산소망을 가진 신자는 어떤 자리에서도 능력있게 살아갑니다. 셋째, 새언약의 보증이 되었습니다(22). 구약에 그림자 형태로 예언 속에 발전되었던 옛 언약은 그리스도의 단번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새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새언약 백성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씀으로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 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Master Degree Programs

Doctoral Degree Programs

Certificate Program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chelor of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성서신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ster of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al Arts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

인/터/뷰

이기성 목사(해외 한인 총회 총회장)

“성경중심, 복음중심, 선교중심, 목양중심 정신으로 총회 이끌겠다”

해외한인총회(KPCA) 제 44회 정기총회가 5월 7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려 신임 총회장에 이기성 목사가 추대됐다(관련기사 1면). 본지는 총회장 이기성 목사(밴쿠버 삼성교회)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다음과 같이 게재한다.

1. 제44회 총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당선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마음으로 섬김과 헌신을 다하려고 합니다.

2. 44회 총회를 맡으시면서 총회를 향한 비전과 계획을 소개해주세요.

자랑스러운 우리 해외한인장로회 총회는 1976년에 3개의 노회로 시작하여 현재 22개 노회, 약 480개 교회, 970여명의 목회자, 총 교인 수 약 90,716명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700만 디아스포라의 영적인 생명과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왔습니다.

첫째, 1976년 이후 무려 43년 동안이나 우리 총회가 해외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지켜온 성경중심, 복음중심, 선교중심, 목양중심의 정신을 확고히 하고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일에 힘을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 우리 총회는 목양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던

있는 교회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총회는 노회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돕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심을 다 하려고 합니다.

3. 평소 갖고 계신 목회철학은 어떤 것인지요?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앙적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



묵함'입니다.

4. 개인적으로 목사님의 목회적 경력을 소개해주시고 가족 소개도 해주십시오.

저는 서울장신대학교와 장로회신학교에서 목회자로 훈련을 받았으며, 광성교회와 영광교회 대구영락교회를 거

하나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세상과 '성경으로 말미암은 진실함' 자신과 '중생으로 말미암은 거룩함' 을 덕목으로 묵회

지 관계없이 세상에 동화되거나 타협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바 진리와 가치들만을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펼쳐 나가는 복음중심의 총회가 되도록 힘써왔습니다. 저 또한 우리 총회가 이 거룩한 경주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또한 우리 총회는 22개 노회 산하에 약 480여개의 교회가 한마음으로 어우러져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총회의 모든 노회 산하에

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둘째는 세상 또는 이웃(사람)과의 관계이며, 셋째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복음적으로 현실화시키며 사는 것이 신앙적 삶이라고 생각하며 묵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신앙적 덕목을 목회적 중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입니다.

둘째, 세상(이웃,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으로 말미암은 진실함'입니다.

셋째,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생으로 말미암은 거

침면서 목양적 훈련과 목회자됨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삼성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아내 성낙희와 현재 빛과소금교회에서 청년부 전임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 큰 아들 강훈이와 캐나다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작은 아들 강민이가 있습니다. 귀한 신문에 지면을 할애해 주신 귀 신문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메시아닉 유스, 작지만 하나님이 불러 쓰신다

(3면에서 계속)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이스라엘 정부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을 중단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메시아닉 유스)에 대한 이민 차별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코웬은 말했다. (메시아닉 유스 외에) 다른 집단들에게는 신앙이 별 문제가 안 된다.

“나는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그 귀환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예루살렘포스트’가 2017년 현재 메시아닉 유스가 35만이라고 보도하면서(WILL ISRAEL EVER ACCEPT MESSIANIC JEWS?: Indeed, Messianic Jews are largely shunned by mainstream Jewish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and are commonly seen as proselytizers), 오히려

긴장은 더 고조될 전망이다.

체르노프는 전 세계에서 메시아닉 유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적이라 성경적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를 불러 쓰십니다.”

건강 길라잡이



이명직 내과전문의

흡인성 폐렴

근력 약해진 노인층에서 흔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들도 많이 늘고 있다. 전립선암이나 치매, 파킨슨씨 질환과 같이 노인 인구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질환들도 있고 음식을 삼키는 근육이 약화되면서 음식이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폐로 들어가서 발생하는 흡인성 폐렴처럼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도 있다.

-은퇴한 80세 초반의 김 모 씨는 일주일 전부터 숨이 차오는 것을 느꼈다. 특히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더욱 숨이 찼고 기침도 자주 났다. 미열이 났고 몸살증상도 있었다. 김 씨는 평소 식사 중에 기침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하게 기침을 한 다음에는 더욱 숨이 찼다. 밤이나 고기를 먹을 때는 기침을 하지 않았으나 물을 마실 때는 기침을 했다. 병원에 온 날도 심하게 기침을 한 후 호흡관란이 와서 찾아왔다고 했다. 김씨는 10년 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고 식이요법과 약물치료를 잘 조절했고 5년 전에는 퇴행성관절염으로 우측 무릎의 관절 성형수술을 했다. 당뇨 외에 다른 큰 질병은 없었다. 담배는 20년 전에 끊었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 이학적 검진 상 혈압은 정상, 맥박은 분당 95로 조금 빨랐다. 체온은 37.9도로 조금 높았고 청진상 우측 폐 하엽에서 이상음이 들렸다. 또 양쪽 폐에서 천명도 들렸다. 폐 엑스선 검사상 우측 하엽에 침윤이 보였다. 김 씨는 폐렴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단순 폐렴이 아니라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 받고 입원 치료를 시작했다. 병원에 입원한 김 씨는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고 정밀 검사 후에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교정하기 위한 치료를 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해 튜브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흡인성 폐렴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경로로 발생한다. 음식을 먹는 도중에 삼킨 음식이 폐로 넘어갈 수 있고 환자가 누워 있는 중에 위 속 내용물이 역류하면서 폐로 넘어가서 폐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정상적으로는 인체는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면 기침과 같은 방어기전에 의해서 하루 기도까지 음식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지만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음식을 삼키는 근육이 약해져 연하장애(삼키지 못하는 것)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이 기도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이는 특히 80-90세 이상의 노인층에서 흔하다.

흡인성 폐렴이 발생했을 때 세균감염 없이 위산이나 이물질만 폐로 흡입되었을 때는 회복될 수 있지만 구강 내 세균이 대량으로 기도로 넘어갈 때는 목숨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흡인성 폐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비통(조영제의 일종)을 먹고 엑스선 사진을 찍을 때 구강 내의 음식이 대량으로 기도로 넘어가는 것이 발견될 때는 튜브로 음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흡인성 폐렴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제 4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4th Joint Youth Retreat

믿음에 굳게 서서 STAND FIRM IN THE FAITH

기간 : 2019년 7월 22일(월)-24일(수)

장소 : 나성순복음국제음식기도원 (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

대상 : 6-12학년 중등부 및 고등부 (2019년 9월 기준)

등록 : 6월 21일(금)까지 (선착순 100명)

신청 : www.lafgc.com

문의 : 나성순복음국제음식기도원 Tel: 951.928.4415 / Email: lafgced@gmail.com



Scan me